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1월 11일)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누락됐던 '사찰 이모지' 韓불교 제작 가능하다

美유니코드협, 4~8월 이모지 공모
새로운 이모지 제안, 누구나 가능
빈도 · 새로운 개념에 '사찰' 부합
이모지, 이젠 전세계적 소통 도구
전문가들 "범불교적인 참여 시급"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전 세계로 보급되는 이모지에 '사찰'을 포함할 방안이 확인됐다.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사찰 이모지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자 관련 전문가들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지 표준코드를 제작, 전 세계에 배포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 '유니코드 협회'는 매년 4~8월에 감정·인종·건물 등 다양한 이모지로 원활한 온라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신규 이모지를 제작·등록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다만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최종 승인될 수 있기에 제안서 작성부터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NG 파일 형식에 반드시 컬러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 두 가지 '선택 요소'가 있다.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포함 요소'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는 '제외 요소'가 그것이다.

포함 요소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연 '빈도(frequency)'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모지일수록 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모지 제안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인 '이모지네이션' 홍보 영상에서 세바스티안 델몬트 씨는 "제안하는 이모지 검색 횟수가 비교 대상보다 높아야 승인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협회가 요구하는 빈도 데이터는 '구글 트렌드 검색' 산출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데, 불교의 '사찰'은 이 조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지가 구글 트렌드 검색 창구에 불교 사찰과 이미 '종교적 장소' 이모지로 구현된 유대교 사원, 일본 신도(神道) 신사를 비교했다. 사찰을 'Buddhist temple'로, 유대교 사원을 'Jewish temple', 일본 신도 신사를 'Shinto temple'로 설정·검색한 결과, 사찰이 평균 61%, 유대교 사원은 28%, 신도 신사는 2%로 사찰 검색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 빈도 데이터는 종교 장소 이모지 승인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힌두교 신자인 기리쉬 달비와 마야크 차투르베디 씨는 "교회, 모스크 등 타종교를 상징하는 장소 이모지는 있는 반면, 인도의 종교를 대표하는 이모지가 없다"며 이모지 공모에 참여했다. 이 둘은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를 토대로 힌두교 사원의 검색 빈도가 유대교 회당과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보다 많다는 점을 증명, 2019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사찰은 아직 이모지로 등록된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 제시'에 속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니코드 협회에 따르면, 기존 이모지나 조합으로 표현되지 않는 새로운 이모지는 포함 요소로서 심사와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모지에 '제외 요소'가 포함될 경우 승인에 감점 요소로 작용하거나 자동으로 제안이 거부 된다. 특히 이모지 디자인에 특정 건물 및 랜드마크, 가상·역사적, 살아 있는 또는 죽은 특정 인물이 들어가면 그 제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또한 디자인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이모지의 대표성을 해칠 수 있어 심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불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찰 이모지'를 구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이모지 시장에서 불교 '사찰' 이모지를 등록·보급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와 불자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유니코드 협회 공모에 의견을 넣으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불교계와 관련 기관이 협업해 불교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사찰 이모지 시안을 제작하고 신도회 등을 주축으로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불교 관련 이모지가 유니코드 협회에 수용될 때까지 불교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역시 "'사찰 이모지'를 만들 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모지 시장뿐 아니라 세계 종교시장에서 불교가 위축될 것"이라며 "최종 승인까지 살펴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년 4월에 열릴 이모지 공모전에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동국대 재학생들은 12월 4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국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학생 시국선언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비상계엄은 역사 후퇴" 불교계 비판 고조

조계종 · 태고종 성명 발표해
동국대 재학생 시국선언 발표
불교계 시민사회, 일제히 비판
종교지도자들 "민주적 해결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결국 155분만의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심각하다. 불교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민주적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진우 스님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모두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킨 이번 사태를 현명한 지혜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을 강조한 스님은 "과정은 더욱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 종단 중 가장 먼저 공식 성명을 발표한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해임을 촉구했다. 태고종은 12월 4일 대변인 영범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비판성명을 통해 "평온한 민주의 밤을 깨고 느닷없이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법률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이자, 국민을 겁박하는 무모한 선동"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태고종은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윤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배신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련된 인물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먼저 시국선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재학생들은 12월 4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홍예린(사회학과 19학번) 씨는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만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선포였다. 이는 내란이었고, 국민을 향한 반역이자 쿠데타였다"며 "우리는 대학생이다.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124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고 밝힌 동국대 학생들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서, 지금 즉시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성명서에서 "현재 국가비상상태가 아님에도 병력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법 예산 의결과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점 등은 대통령 스스로 헌정 질서를 전복해 탄핵 사유를 구성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시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독재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청천벽력같은 반(反)헌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의 안위를 위협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종교지도자들은 민주적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부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실천할 것"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했다.

신중일 · 임은호 · 김가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 오후 5시
장소 : HW컨벤션 (하림각 서울 종로)
문의 : 02)2004-8214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곧은 길도 있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뛰었고, 때로는 아픈 다리를 누이고 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30년 세월은 어느덧 '불교 언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해주신 고승 대덕스님과
불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뛰려고 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1994년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불법홍포'라는 불교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진정한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도약의 걸음을 내딛는 축하와 기념의 자리에 모시고자 하오니, 함께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모든 인연과 생명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불기2568(2024)년 11월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 도
대 표 한명우 합장

제36회 포교대상 시상식…대상에 돈관 스님

조계종 포교원, 12월 4일 개최
"전법 주인공들 솔선수범 감사"
돈관 스님, 나눔 기금 2000만원
북천 스님도 포교기금 500만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포교원이 12월 4일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을 열고 공로자들을 치하했다.

불교 포교 현장 공로자들을 치하하는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1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6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돈관 스님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돈관 스님은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소임을 역임하며,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개원을 비롯한 가람정비와 불교대학 개설을 통한 교육포교에 진력했다. 학교법인 '동곡학원'을 설립해 선화여자고등학교를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과 건학위원장, 사단법인 상월결사 제2대 이사장으로서 미래불자 양성에도 힘썼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각 세대 눈높이에 맞춘 지원은 물론 장학제도를 통해 2000명의 불교계 장학생을 양성했다. 특히 동국대 29개 단과대학에서 불교동아리 창립을 견인하고, 불교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 수계법회(서울권 2500명, 경주권 1800명)를 봉행하는 등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가치관이 인재양성에 자양분이 되는 바탕을 마련했다.

돈관 스님은 "'시대에 따라 종교는 변화해야 한다'는 글귀를 가장 좋아한다. 불교도 대중불교, 생활불교, 사회불교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불교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명상을 보급하고,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불자·일반 재가불자 모두가 함께하는 사부대중의 불교가 돼야 한다. 또 불교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인재를 키워내고, 소외 이웃의 아픔도 보듬어야 한다. 그런 불교를 만들기 위해 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돈관 스님은 포교대상 상금 1000만원에 추가 기금을 보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돈관 스님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동국대학생 200여 명이 시상식장을 찾아 훈훈함을 더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은 경국사 주지 일운 스님(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과 정재화 전 만월사 신도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운 스님은 "출가해서 시줏돈으로 밥먹고 공부했다. 이 빚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활동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늘 자비 충만하고 행복하시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은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 사단법인 동련 사무총장 능후 스님, 순윤홍 교정교화전법단 사무과장, 이현숙 포교사단 부단장, 이명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문민경 봉선사 청소년법회 지도교사가 받았다. 북천 스님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는데, 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열심히 하란 뜻으로 알고 더 성심껏 포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능후 스님도 "초심으로 돌아가 정진하겠다"고 했다.

시상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중흥과 미래인재 양성에 진력해 온 돈관 스님과 수승한 원력으로 포교 현장에서 헌신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분을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로 이끌어 줬다"며 "그렇기에 당연히 종단적으로 함께 축하하고 공덕을 나누는 일은 더없이 뜻깊고 즐겁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자 북천 스님(구암사 주지)은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만나 포교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북천 스님은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 나마스테'를 설립·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한 한끼를 선물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스리랑카 학인스님 100명에게 매달 3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계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학생을 선발 · 지원하는 장학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졌다. 8기 위원장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이 맡았다.

조계종, 장학위 8기 위촉…위원장 정묵 스님

12월 2일, 12명에 위촉장 수여
"장학금 빠짐없이 지급 최선"

승가교육진흥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11명의 제8기 장학위원회 스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부장 승원 스님,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다. 장학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인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이 임명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 정묵 스님은 "위원 스님들과 잘 상의해서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덕암 대종사 원력, 계승하겠습니다"

덕암문도회, 열반 21주기 다례재
11월 29일 종로 법륜사 대불보전


원장 상진 스님, 덕암문도회장 혜일 스님(호법원장)을 비롯해 총무부장 도성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부·국장스님들과 덕암문도회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스님은 덕암 대종사 영전에 향과 차를 올리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제13·16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덕암당 흥덕 대종사의 원력과 유훈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덕암문도회(회장 혜일 스님)는 1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덕암당 흥덕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태고종 총무

진우 스님 취임 800일 108배…"전법 포교 진력"

12월 5일, 취임 800일 맞아
조계사 대웅전서 108배 정진
"전국민 불자될 때까지 진력"


취임 80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이 12월 5일 108배를 하며 전법포교를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80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이 서울 조계사 대웅전 법당에서 108배를 올리며 전법포교를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108배 후 불자들의 축하 속에 소참법문하며 역점 불사 완수를 통한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임기 4년, 일수로 1460일 중 800일이 됐으니 앞으로 646일정도 남았다"면서 "임기의 반이 좀 더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취임 이후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처음 세운 목표에 크게 다다르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서로 간의 정과 자비심, 교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악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염려를 표한 스님은 "대사회적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선명상을 주창하고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으로 불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길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선명상 확산으로 자연히 불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불자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포교와 전법에 임하겠다"게 밝혔다.

이날 원장스님은 종단 화합과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먼저 내부가 화합되고 안정돼야 종단 역점사업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면서 "선명상 보급과 불사를 약속했던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청년포교 전법불사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의례위원장에 원명 스님

12월 4일, 의례위원회의서 호선
신임 위원에 성원 스님 위촉도

조계종 의례위원회는 1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9차 의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위원장으로 재호선했다. 의례위원장은 의례법 제5조 제5항에 의거, 의례위원회 호선으로 의결된다.

원명 스님은 "의례위원회를 종단의 무형 유산과 접목하는 등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새롭게 힘을 내 의례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의례위원에 원명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위촉했다.

임은호 기자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편백 숯침대
100% 참숯

편백침대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청련사, 어르신 마음 녹이는 연탄·김치 선물

12월 2일, 소외계층 자비나눔
100가구에 김치 등 생활용품
17가구에 연탄 총 1만장 배달
상진 스님 "따뜻한 겨울 되길"

김내영·김가령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나태인 장흥면장 등이 연탄을 손수 옮기고 있다.

태고종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

청련사는 12월 2일 양주 장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의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청련사 회주)과 나태인 장흥면장, 청련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청련사가 이날 장흥면에 전달한 물품은 김장김치 12kg씩 100박스와 라면 100박스, 화장지 300롤, 고무장갑 500켤레, 연탄 1만장이다. 김치와 라면, 화장지, 고무장갑은 지역 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연탄은 580여 장씩 17가구에 전달됐다.

물품은 청련사 대중스님들의 모임인 참나나눔회, 청련사 포교원, 청련사 관음회, 심향합창단, 청련사 매점, 장흥면사무소, 장흥면 새마을부녀회가 후원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김장김치는 전날 청련사 대중스님들과 신도회, 불자들이 직접 담그고 포장한 것이어서 자비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태고종은 종로구청에도 김치1000kg과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한다. 장흥면에는 특히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시는데 청련사가 준비한 김장김치와 연탄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바라밀뿐"이라고 강조한 상진 스님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련사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나태인 장흥면장은 "올해 1월 면장으로 부임하면서 청련사가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청련사 덕분에 포근하게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다. 발전하는 청련사 되길 기원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달식에 이어 참석대중은 인근 장흥면 일영리에 위치한 취약가구를 찾아 연탄을 손수 날라 훈훈함을 더했다.

청련사는 매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자비나눔 성금지원을 이어오다 2017년부터는 생필용품, 선풍기, 김장김치, 연탄 나눔으로 확대했다. 노인잔치, 무료급식, 장학사업, 군부대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연간 나눔 비용만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청련사는 향후 예산을 확대, 더욱 적극적인 나눔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진 스님은 같은 날 오후 종로구청을 방문, '2025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우리동네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김치 10kg, 100상자와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물품은 태고종 복지재단과 태고종 서울강북 교구 종무원에서 후원했다.

동국대本 '불교학 개론' 발간 추진된다

돈관 스님 증명으로 편찬위 구성
2025년 상반기 개론서 발간 예정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가 시대에 맞는 '불교학 개론' 발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이겠다는 게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복안이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2월 4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학기본기관장들은 5대 공통의제에 대한 기관별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동국대 출판문화원장)은 내년 5월 초 발간 예정인 〈불교사전〉 편찬 사업 진행 상황을 발표와 함께 새롭게 편찬이 추진되는 〈불교학 개론〉 발간 사업에 대해서 소개했다.

박기련 사무총장은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대에 맞는 불교학 개론서가 없다. 기존 개론서는 40년 전에 발간돼 보완이 필요하다"며 "건학위에서는 이사장 돈관 스님들을 증명으로 모시고 '불교학 개론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편찬을 추진하며, 1차 회의를 가졌다.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불교학 개론〉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편찬위원회에는 황순일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장,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유진 스님, 박기련 사무총장이 공동편찬위원장으로 참여하며, 불교대학·불교문화대학 전임교원이 편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동집행위원으로는 각 단과대학 추천인과 법인 추천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방학기간 이뤄지는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활동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에서는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들이 38개 방학 신행프로그램을, WISE캠퍼스에서는 16개의 방학 신행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도 해외불교 순례부터 템플스테이 체험, 봉사활동 등 다양하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올해 서울캠퍼스, WISE캠퍼스를 비롯해 법인 산하학교에서 6500명이 수계를 받았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불자로 정착시키고 전법 원력을 이어갈지가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기관별로 수계법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복지 발전 위한 자비행 실천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복지유공자 32명에게 표창 수여
취임 800일 진우 스님 기금 쾌척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2월 5일 '제26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표창받은 복지유공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년 한 해 복지현장에서 불교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진우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12월 5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6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는 한 해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 도운 사회복지 일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불교사회복지 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는 사회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를 첫 번째 원을 세워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발원했다"면서 "마음의 평화가 곧 사회복지이며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2025년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과 함께 국민의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 80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은 복지재단 발전기금 8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부처님 자비 실천 가르침 실현을 위해 복지 현장에서 노력한 분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위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전문 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비나눔 유공자 총무원장 표창은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 불교사회복지 발전공헌, 자원봉사 후원활동 등 세 부문에 나뉘어 시상됐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에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대표이사 연규 스님) 등 4곳이 수상했다. 이어 김경애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전문가 3명이 불교사회복지 발전공헌상을 받았다. 또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단체 '군자동자원봉사캠프'를 비롯해 복지활동가 2곳이 표창을 받았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세 부문에 걸쳐 △김용학 공주시니어클럽 관장과 △김영광 연화보호작업장 선임 직업훈련교사 △고명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기관과 봉사자 11곳에 시상했다. 김가령 기자

日대사에 강제징용자 유해 송환 협조 당부

12월 4일, 미즈시마 대사 예방
2025년 수교 60년 교류 약속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하는 데 협조를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미즈시마 코이치 대사와 환담하며 "한국과 일본 불교계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와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등을 함께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얽혀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불교계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일제 강점기때 일본에서 노동을 하다 희생된 이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논의를 일본 불교단체와 진행 중이며, 현지 불교계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사관을 통해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여러 과제가 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이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한 한국불교문화 체험 주간을 언급하자 미즈시마 코이치 대사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불교 문화로 민간교류에 힘써줘 감사하다"면서 "2025년 한일수교 60주년을 앞둔 만큼 대사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마주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 일 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280~330만원

천불천탑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완벽 순례 5박 6일
■ 일 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미얀마 바간


대만 4박 5일
■ 일 정 불광사–중대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천혜의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
베트남+캄보디아 4박 6일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불교의 나라,
태국 3박 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과천청사불자협 창립 "전법 최전선에 설 것"

12월 3일 과천 보광사 극락보전서
선재 스님 등 40여 사부대중 모여
초대 회장 권근상 공불련 사무총장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정부과천청사 불자연합회가 12월 3일 과천 보광사 극락보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정부과천청사 불자연합회 모두가 위없는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추진하는 정책은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3개 기관, 5000여 공무원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불자들이 모였다. 정부과천청사 불자연합회(회장 권근상, 이하 과천청사 불자회)는 12월 3일 과천 보광사 극락보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전법과 수행에 진력할 것을 발원했다.

과천청사 불자회는 권근상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 회장은 2024년 3월 정부과천청사 관리소장직에 부임한 후 정부과천청사에 불자회가 없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직접 청사 건물 10개 동에 불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함께 할 인연을 수소문했다.

올해 4월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계기로 과천경찰서 불자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과천경찰서 불자회장의 소개로 청사 근처의 보광사를 알게 되어 과천청사 불자회가 의지할 도량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결실로 20여 명의 불자가 모여 이날 창립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보광사 주지 선재 스님, 보광사 총무 여산 스님, 권근상 과천청사 불자회장, 전충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총괄고문, 김동현 대통령실 불교담당 행정관, 송남출 공불련 간사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반야심경 △경과보고 △권근상 회장 인사말 △선재 스님 설법 △발원문 봉독 △사홍서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권근상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자들이 용기를 내어 서로 의지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고 보현행원을 실천하고자 뜻을 모았다"며 "우리 과천청사 불자회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초발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수행 정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진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발원했다.

과천청사 불자회 지도법사인 보광사 주지 선재 스님은 법상에 올라 불자회 회원의 행복이 곧 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전법이 되고 포교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불자연합회가 될 것"이라며 "보광사는 과천청사 불자회의 고향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다.

법회가 마무리되고 과천청사 불자회 회원들은 불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돈관 스님, 석림동문회장 재임

12월 2일 동국대 상록원서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시상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동문회 제19대 회장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재임했다.

석림동문회(18대 회장 돈관 스님)는 12월 2일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과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 및 장학금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만장일치로 19대 석림동문회장직에 재추대됐다.

돈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경책으로 동국대가 대학 평가 10위 안에 들고, '영캠프'를 통해 4000여 대학생·청년이 불제자가 됐다"며 "제19대 회장으로서 동국대의 발전과 더 많은 학생들이 부처님을 따르는 전법·포교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과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에는 수원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11기), 마하붓다사 주지 진오 스님(18기),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25기), 뉴저지 원적사 주지 성향 스님(34기)이 수상했다. 장학금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백상원 학감 일윤 스님(50기), 혜광원 학감 동진 스님(57기), 백상원 회장 원묘 스님(58기), 와이즈캠퍼스 석림회 학감 청감 스님(49기), 사라림 학감 동원 스님(47기), 석림회장 평인 스님(60기)이 받았다. 김민재 기자

동대부여중·고 교명 '동대부가람중·고'로 바뀐다

12월 3일 동국대 이사회서 승인
남녀공학 전환…경영 정관 반영
교내 사업 추진 현황 보고회도


동국대는 12월 3일 이사회를 열어 동대부여중 · 고의 명칭 변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국대 산하의 동대부여중과 동대부여고가 2025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이 '동대부가람중' '동대부가람고'로 변경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12월 3일 서울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57회 이사회'를 열고 동대부여중·고의 명칭 변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사회는 이사 13명 중 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동대부여중·고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학부모와 학생, 졸업동문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 1년여 간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사회 교육위원장 경우 스님은 "변경되는 명칭인 '가람'은 순우리말로 '강(江)'을 뜻한다"며 "학생들이 공부하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청정한 도량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제정했다"고 새로운 명칭의 뜻을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로터스관 신축사업 추진 변경(안) △의과대 정원 증원에 따른 추진(안) △청탁금지법 교육 △사학기관 행동강령 교육 △2024회계연도 법인 중간감사 결과 등 교내 사업에 관한 보고도 진행됐다.

회의의 마무리에서 동국대 이사이자 전 부총장 종호 스님은 "불교 동아리 확대에 따른 지도법사 스님들의 증원이 이뤄져 이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교법사, 지도법사 스님들의 업무 환경 개선이 곧 불교 전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종호 스님은 법인 발전기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여러 임원진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동국대가 3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 10위 내에 드는 쾌거를 이뤄 감사를 전한다"면서 "올해 영캠프를 통해 동국대와 산하 학교의 6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계를 받아 불자로 거듭났다. 이를 시작으로 불자 양성에 더욱 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청소년이 생각하는 화쟁이란 "감자전분?"

조계종 화쟁위·교법사단 공동
'하이, 화쟁 영상이미지 공모' 시상
의정부광동고 이수 학생 대상 수상

"제가 생각한 화쟁은 '기다림'입니다. 귀한 보물은 찾기 힘들다는 말처럼, 상대에 대한 존중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털어놓은 개인적인 경험이 행복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빛나는 경험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문 스님)가 개최한 '하이, 화쟁 영상&이미지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의정부광동고 이수 학생이 소감에서 화쟁의 의미를 밝혔다. 이수 학생의 장편영상 '화쟁은 기다림이다'는 가족 간 '섭섭했던' 순간과 이를 풀어가는 기다림 속에 느낀 깨달음을 직접 그린 그림 표현, 영상화한 작품이다.

화쟁위원회는 12월 4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하이, 화쟁 영상&이미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전국교법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화쟁은 00다'를 주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화쟁의 의미를 1분 이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인 화쟁위원장상의 이수 학생을 비롯해 미래본부 사무총장상에 광동고 서아율 '화쟁은 감자전분이다'(장편 영상), 광동고 박수민 '화쟁은 실이다'(만화)가 선정됐다.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상은 광동고 김진서 '화쟁은 소금이다'(릴스), 의정부광동고 신하진 '화쟁은 자석이다'(만화), 의정부광동고 양서지 '화쟁은 팔레트다'(장편영상)가 받았다. 교법사단장상은 광동고 한자민 '화쟁은 거미줄이다'(만화), 동대부여중 김채연 '화쟁은 요리의 맛조화다'(만화), 의정부광동고 이영채 '화쟁은 감정통제다'(만화)가 차지했다. 이밖에도 해동고 박성준 '화쟁은 슬리퍼다'(장편영상)을 비롯한 10편이 입선에 선정됐다. 단체상은 동대부여중과 광동고에게 돌아갔다.

공모전을 마련한 정문 스님은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화쟁 정신을 잘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민추본, '금강산 유점사' 가치 조명 연구포럼

11월 29일, 역사관 대회의실서
"남북교류 활성화, 복원 가능성↑"



금강산의 대표사찰로 1760년대에 846칸의 사찰이었다는 기록이 남은 대찰, 금강산 유점사의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포럼이 개최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는 1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금강산 유점사 복원의 학제적 접근과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제1차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을 열었다.〈사진〉

연구포럼에서는 유점사가 가진 학제적 가치를 조명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유점사 사적기부터 한국전쟁기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분석하며 유점사가 가진 불교적 가치를 조명했다. 이 학예사는 "여러 기록에 따르면 유점사는 금강산 최초 사찰이자 금강산 신앙의 본거지로 고려후기부터 조선말기까지 왕실의 지원이 끊이지 않은 사찰"이라며 "한국전쟁 시기 남북 격전지였던 유점사는 남북화해와 위령의 성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점사의 지리적 가치(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대우교수) △유점사의 문화적 가치(유근자 국립순천대 교수) △유점사 복원 가능성(박상준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관)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오늘 1차 포럼이 유점사가 가진 불교사적, 지정학적, 문화사적 가치를 헤아려 금강산 유점사 복원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불교문화유산의 교류 연구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가령 기자

중앙신도회, 성지순례로 화합 도모

11월 24일~12월 2일 7박 9일
현지 어린이 위한 물품 후원도



중앙신도회가 부다가야, 사르나트 등 부처님의 자취가 남아 있는 성지를 참배하고 제28대 집행부 임원들 간 화합과 유대를 강화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박 9일간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를 회향했다.〈사진〉 순례단은 정원주 회장을 비롯해 제28대 집행부 임원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다가야, 사르나트, 라지기르,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바라나시 등 인도·네팔의 성지를 순례해 신심을 다지고 임원 간 화합을 도모했다.

정원주 회장은 "성지순례에 협조해 주신 현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순례가 앞으로 중앙신도회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례단은 부다가야에 위치한 조계종 직할교구 사찰 분황사와 기원정사 근방의 천축선원을 방문,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아동의류를 후원했다. 김민재 기자

명원 스님,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추대

11월 23~24일, 임시총회서



영동 반야사 주지 명원 스님〈사진〉이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신임 연맹장으로 추대됐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 스님)은 11월 23~24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원에서 임시총회와 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하고 신임 연맹장으로 영동 반야사 주지 명원 스님을 추대했다.

명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불교스카우트 활동에 진력하겠다"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카우트 활동은 불교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청소년 전법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불교스카우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불교연맹은 2025년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도 한국불교를 알릴 계획이다. 김민재 기자

아름다운동행, 예비 초등생 '책가방' 선물

2025년 지원대상자 모집 시작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가방 보내기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책가방 보내기' 기금 모연과 지원 대상 어린이를 모집한다.

'책가방 보내기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예비 초등생에게 새로운 책가방과 입학 준비물품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책가방은 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어린이들은 2025년 상반기 새학기 시작 전 책가방과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책가방 보내기' 후원과 더불어 아름다운동행의 '교육지원사업' 정기후원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에서 가능하다.

02-737-9555 김가령 기자



일면 스님은 서울 중랑구 저소득 가정에 직접 김치와 전기매트 등 겨울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염원했다.



올해도 배우 배수지 씨가 1500만원을 후원해 200가구에 김치와 라면 등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마하무용단은 신명나는 무대로 구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일면 스님과 홍보대사들은 골목 곳곳을 돌며 소외이웃에게 물품을 배달했다.

“어르신~ 맛있는 김치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⑫ 따뜻한 정나누기

생명나눔실천본부, 12월 3일
서울 중랑구서 ‘11회 정나누기’
배우 수지 후원으로 김치 · 라면
엄용수 · 배아현 홍보대사 동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중랑구 반지하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는 양○○ 할머니(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다. 해마다 낙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겨울 물품을 지원하고자 방문한 것.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어르신에게 김장김치와 라면, 김 등 식료품과 전기매트를 전달하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3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제11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실시했다. 따뜻한 정 나누기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2014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많은 이들이 보내준 사랑을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보다 따듯하고 희망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담겼다.

매년 의정부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자비나눔을 펼쳐온 생명나눔은 올해 중랑구와 함께 정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6월 12일, 중랑구의회와 체결한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일면 스님을 비롯해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곽혜란·최원준 홍보위원, 홍보대사인 개그맨 엄용수, 가수 배아현,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 조성연 전 의장, 최윤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관내 16개 동에서 추천받은 중랑구 일대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200가구에 각각 김치 10kg과 라면 1박스 등 저장음식을 골고루 전달했다.

개그맨 엄용수, 가수 배아현 등 홍보대사들은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손을 잡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자주 봤다”며 배아현 홍보대사를 알아보고 기뻐하기도 했다.

배아현 홍보대사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이자 중랑구 홍보대사로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골목 곳곳 소외이웃에게 물품 배달을 마친 일면 스님은 “오늘 정나누기 행사를 통해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5만 회원들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격적인 물품 전달 전, 중랑구청 대강당에서 전달식과 함께 작은 공연이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이 흥겨운 전통 춤과 장단을 선보이자 구민들은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나누기는 25만 생명나눔 회원들이 보내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생명나눔이 2014년부터 시작한 행사”라고 소개하며 “국민천사로 불리우는 배우 겸 가수 배수지 씨가 후원금 전액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수지 배우는 지난해 2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 1500만원을 쾌척했다. 2016년부터 정나누기에 후원을 이어온 배수지 배우의 누적 기부금은 2억원에 달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등을 위해 쓰여졌다.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기부해준 귀중한 물품과 성금은 중랑구의 어려운 구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랑구의회는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복지향상과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전달식과 함께 난치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에게 의료비 300만원 전달하며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소중한 날,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큰 기쁨과 따뜻한 희망을 전합니다



발급기준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 발급
(타인 명의 발급 불가)

공제대상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등)
연령,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가능

후원계좌
농협은행 053-17-001346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문의
02-734-8059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30일 대장정 시작

12월 1일, 경내 설법전서 입재법회 봉행

서축암 감원 우진스님 입재 법문
"경전 지혜 삼아 마음을 비추라"
현덕 스님 "한달 간 수행 정진"
12월 30일까지 오전·오후 법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12월 1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사진은 서축암 감원 우진 스님이 입재법문을 하는 모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2월 1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이날 통도사 경내는 산문부터 도량까지 차량이 줄을 이었고, 불자들은 설법전과 앞마당까지 빼곡히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 매년 열리는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전국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화엄법회로 30일 동안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이 기간동안 불자들은 통도사에서 매일 기도하며 법문을 듣고 인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도한다. 또한 전국의 대강백 스님 30여 명이 법사로 참여해 다양한 해설과 화엄경의 도리를 전해 매회 새로운 지혜를 얻고 있다. 매년 참석하는 불자들의 수행 정신을 독려하기 위해 통도사는 30회와 25회 등 연이어 참석한 불자들에게 성만패와 기념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

입재 법문은 전 통도사 강주이자 서축암 감원 우진 스님이 맡아 화엄경에 대해 안내했고, 불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우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의 '방'은 '방정'의 방이다. 상장을 받으면 품행이 방정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지혜를 의미한다"며 "경전을 지혜로 삼고 등불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비춰야 한다. 마음을 알고 본성을 알아 의심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법문"이라며 "이렇게 직접 화엄경을 만나고 지혜를 얻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엄경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인간계와 천상에서 최고의 복을 짓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우진 스님은 오전 입재 법문에 이어 오후 법회에서는 '화엄경 현수품'을 대중과 함께 독송 정진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화엄산림법회에 동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도량을 찾아주시고 수고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도량에서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정진하며 수행의 열락을 누리시길 바란다. 법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통도사 유튜브를 참고해 법문을 듣고 수행정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달간 있을 화엄법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전국 최대 최장의 법석으로 유명하다. 통도사 개산조 자장 율사는 화엄의 대가로 〈화엄경〉을 최초로 강설한 스님으로, 화엄산림법회는 자장 율사의 법연(法筵)을 이어가는 법석의 장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 입재일을 시작으로 30일 동안 이어져 12월 30일 회향한다. 회향일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법계품과 회향 법문을 설한다.

화엄산림법회 사시불공은 오전 10시, 법문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봉행된다. 일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 불공을 시작해 오전 10시 20분 법문을 이어간다. 매일 오후 법문 전 오후 1시 '약찬게' 독송, 매주 토요일 저녁예불 후 '법성게' 정진, 일요일에는 오전 법문 후 천도재가 봉행된다. 12월 11일과 25일에는 월하 스님, 벽안 스님 추모다례가 열려 오후에만 법회가 개최된다.

심산 스님, '대원상 상금' 포교불사에 회향

12월 1일 홍법사서 전달식 개최
싯다르타 印공연 1000만원 기부
몽골 나무심기 불사에 500만원


심산 스님이 김면수 뮤지컬 싯다르타 프로듀서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저의 해외 포교 원력이 이뤄진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말로 소통하고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교류의 장이 이뤄질 겁니다. 한국불교의 전법 활동은 멈추지 않아야 하고 라오스에 불사한 한국어과 건물동과 몽골 나무 심기는 그 원력의 시작점입니다."

제21회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상금 1500만원을 해외 문화 포교와 인재불사에 회향하고, 전법포교에 대한 원력을 밝혔다.

12월 1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열린 대원상 상금 회향식에서 심산 스님은 뮤지컬 싯다르타 팀에 1000만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심산 스님은 인터뷰를 통해 문화포교 및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산 스님은 "뮤지컬 싯다르타는 인도 공연을 준비 중이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알고 있으며 부처님의 일대기를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불사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에서 뮤지컬 공연을 보고 인연이 되었는데 이번에 해외공연 소식을 듣고 회향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나래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몽골나무심기를 진행 중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동참하기 위해 대학생 5명을 추천했고 몽골 나무 심기 해외 봉사 참여 뜻을 밝혔다"면서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지원금을 보태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미약하지만 꾸준히 해왔던 일들이 저희에게도 큰 보람이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국가들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심산 스님은 전국 군법당의 불사 및 국내외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청소년뿐 아니라 몽골, 라오스, 인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 사상을 알리기 위해 한나래문화재단을 설립해 포교와 교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원상은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한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공주 동학사, 수진 대율사 전계 법회

11월 30일, 경내 대웅전서



공주 계룡산 동학사가 관허 수진 대율사로부터 계맥을 전수받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공주 동학사(주지 경원 스님)는 11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관허 수진 대율사 전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동학사승가대학장 명오 스님을 비롯한 강사 대일 스님, 불림 스님, 동하 스님, 도민 스님, 본엄 스님, 선효 스님 등 7명의 스님은 조계종 단일계단 계단위원, 사미·사미니 전계대화상인 관허 수진 대율사로부터 계맥을 전수받았다.

수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동학사는 한국불교 선의 기치가 출발한 도량으로 오랜 시간 강학이 이어져 이미 율법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오늘 전계 받는 일곱 스님들과 사부대중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동학사에서 부처님의 율법이 장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수행 정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은 "동학사는 1956년에 최초로 경학 비구니 전문 강원을 개원한 교육의 산실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대선사들이 수행하며 화두를 타파해 선의 중흥조가 된 도량"이라며 "오늘 관허 수진 대율사로부터 계맥을 전수받아 선·교·율의 종지가 충만하고 맑은 청정도량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이날 계를 전수받은 스님들은 발원문을 통해 청정율사가 되기를 서원했다. 일곱스님들은 "위로는 부처님의 제자, 아래로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받은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고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면서 "제자로서 무한한 수행 정진을 통해 회향하는 청정율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퇴옹학술상, 법장 스님·신희정 강사 수상

11월 30일 고심정사서 시상식



위덕대 연구원 법장 스님과 신희정 한국교원대 강사가 제7회 퇴옹학술상을 수상했다.〈사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최연주)는 11월 30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제7회 퇴옹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퇴옹학술상 교리부문으로 법장 스님(자립논증파의 십이연기 해석연구-제쭌 최끼갤의 티벳어본 〈연기의 총의〉를 중심으로)이 수상했으며, 응용부문에는 신희정 강사(불교 마음체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도덕교육에 주는 함의)가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최연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 수상자 및 학술대회 발표자 외 고심정사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회사 △선정과정 보고 △퇴옹학술상 시상 및 축사 △수상자 소감 및 논문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법장 스님의 논문 '자립논증파(自立論證波)의 십이연기 해석 연구-제쭌 최끼곌의 티벳어본 '연기(緣起)의 총의(總意)'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십이연기에 관한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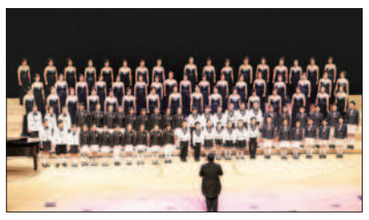
신희정 한국교원대 강사의 논문 '불교 마음체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도덕교육에 주는 함의'는 불교의 마음 체계에 관한 연구로 '불교' '과학' '도덕'을 중심 키워드로 불교 사상의 도덕교육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심정사 회주 원택 스님은 "퇴옹학술상은 인재양성을 위한 성철 대종사의 유지를 받아 제정됐다"며 "7년 동안 연구활동에 매진해준 교수들과 학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매진해 불교 학자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합창단연, 부산불교합창제 성료

11월 30일, 부산문화회관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1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4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격려했다.

합창제는 먼저 부산불교연합합창단의 무대로 시작을 알렸으며, 용화선문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의 선법가가 이어졌다. 이어 범어사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올렸으며, 조계종부산연합회 어린이연합합창단이 특별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축하공연으로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음악은 불립문자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하는 고귀한 예술이 되어 오늘 깊어가는 가을밤을 장식한다. 화합의 장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래종, 수해 피해 일주문 복원 회향

11월 24일 대약사사서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과 인왕문도회(회장 묘선 스님)는 11월 24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일주문 복원 및 수해복구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회향식에는 총무원장 명안 스님, 원로원장 석산 스님, 총무부원장 혜안 스님, 교육부원장 무극 스님, 문도회장 묘선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최정례 신도회장, 이창호 여래구도봉사단장 등 150여 명이 운집했다.

이번 복원을 위해 여래종 종도들을 비롯하여 인왕문도회, 남한산성 약사사 신도 등 하루 60여 명이 대약사사를 방문하여 오물 청소 및 복구 모연에 동참했다. 특히 이인웅 거사는 1000만원을 불사복구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갑자기 호우로 인해 당황스러울 때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렇게 복구를 할수 있었다"며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하다. 2025년은 여래종 창종 60주년 해로 여래종이 부흥하고 불교가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전법 전승에 힘쓰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광명사, 김장김치 자비나눔 전달

11월 30일 경내 공양실서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연말연시를 맞아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 나기를 발원했다.

광명사는 11월 30일 경내 대중공양실에서 '2024 김치나눔 행사'을 개최했다.〈사진〉

참가 내빈들은 직접 앞치마와 장갑을 끼고 김치를 담았으며, 인사말을 통해 추운 연말연시 따뜻함을 기원했다. 이날 봉사자들과 함께 담근 김치는 총 1300포기이며, 금정구 주민 및 부산거주 고려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광명사는 김장김치 뿐 아니라 라면 460박스도 전달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광명사 도량에서 많은 내빈과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은 정성을 담는 일"이라며 "정성 가득 담은 여러분들의 손길이 금정구 관내 이웃과 다문화가정, 복지관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번 겨울 동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축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30돌 개금복지관 "감사 마음 전해요"

12월 4일 '감사의 날' 개최



사단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 스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4일 부산 더스타뷔페 헤리움홀에서 개관 30주년 기념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사단법인 안국 상임이사 석산 스님, 이사 태공 스님, 이사 학산 스님을 비롯해 장유정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장, 박용하 이사,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30주년 감사패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이헌승 의원이 수상했으며, 사단법인 미소원 및 부산도시공사 외 단체 10곳과 진용제 외 개인 후원자 4명이 '30년 주년 후원자 및 봉사자 감사패'를 수상했다. '2024년 후원자 및 봉사자 감사장'은 천지암, 주식회사 리안코트, 밝은 눈 안과 3곳과 이선우 외 개인 후원자 6명, 자원봉사자 신수두 외 10명이 수상했다.

상임이사 석산 스님은 "수불 스님을 대신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불교복지의 첫 출발점이자 불교계 큰 스님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앞으로도 발전해 복지 불국토의 기둥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 살리는 첫 걸음, 전북생명평화포럼 출범

11월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서
생명포럼 회원 100여 명 참석해
연 2차례 정기, 순회포럼 상설화
'모악산 생명평화학교' 개설 예정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생명평화포럼은 11월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식과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생명평화의 시점에서 전북의 현안과 의제를 다루는 '전북생명평화포럼'이 출범식을 갖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북생명평화포럼(공동대표 김택천, 강살리기 추진단 이사장)은 11월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식과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북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생명평화'를 중심으로 전북의 미래와 비전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택천 공동대표는 "전북생명평화포럼은 '문명사적 대전환기, 전북은 어디로 갈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전북의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앞으로 포럼은 새로운 발걸음으로 생명평화의 전북으로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북생명평화 고문 도법 스님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인 '적정성'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역사를 성찰해 모두의 염원이 활짝 피어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도 축사를 통해 "전북생명평화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계기로 생명있는 모든 것이 함께하는 힘찬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발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창립포럼이 진행됐다.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본 전북 전환 전략(정웅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 △생명경제도시를 통한 전북의 특별함(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먹을거리를 통한 전북의 특별함(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북의 가치를 알리고 미래를 탐색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다.

이날 출범한 전북생명평화포럼은 향후 연 2차례의 정기포럼과 순회포럼이 상설화하여 지역의 현안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명평화의 전북미래를 모색하는 '모악산 생명평화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립식에는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수현사 주지 응묵스님, 실상사 주지 승묵 스님,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 천고사 주지 우경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이 함께했다.

또한 한광수 금산사신도회장, 유남희 송광사신도회장, 안준아 금선암신도회장, 양병용 수현사신도회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 정웅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 김택천 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주요섭 사)밝은마을 대표 등 전북생명평화포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축문화재단, 월하 대종사 유영집 '無影樹' 발간

12월 3일 재단 사무실서 발표해
대종사 삶, 사상 사진으로 확인
비매품 2천부 교구본사 등 배포


노천당 월하 대종사 유영집 '무영수(無影樹)'.


1962년 1월 구성된 불교재건비상종회 의원스님들이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 왼쪽부터 능가 · 숭산 · 청담 · 월하 · 추담 · 혜정 스님.

영축문화재단이 조계종 제9대 종정과 영축총림 통도사 초대 방장을 역임한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유영집(사진집) '무영수(無影樹)'를 출간한다.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 스님)은 12월 3일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하 대종사 탄신 110주기를 맞아 대종사의 행적이 담긴 유영집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종사의 상좌 오심 스님, 미타암 동진 스님, 원효암 지범 스님을 비롯해 홍성표 영축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무영수(無影樹)'는 3년 전 기획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회의와 1년여의 편집을 거쳐 수천장의 사진 중 260장이 엄선됐다.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수행, 업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00여 점이 수록됐다. 특히 불교정화운동의 선봉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은 여석회 활동부터 조계종 제9대 종정 시절 모습까지 담겨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애쓴 대종사의 발자취를 살필 수 있다.

영축문화재단은 "수록된 사진 중 1943년 6월 월하 스님과 철원 심원사 스님들이 금강산 비로봉 정상에서 찍은 사진과 1962년 1월 조직된 불교재건비상종회의원 스님들이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에 주목할 수 있다"며 "1954년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으로 운영된 통도사의 사진 속에는 헌병과 도량을 살피는 월하 스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유영집은 비매품으로 초판 2000부를 간행,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 등에 보시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11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부처님 전에 봉안된다.

간행위원장을 맡았던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은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유영집을 간행하고 봉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반에 든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학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대종사의 가르침이 후대에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불교聯, 제34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

12월 2일 창원 정법사서 개최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가 12월 2일 창원 정법사 만불전에서 '제34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제34회에는 문학부문에 서일옥 시조시인, 예술부문에 정양자 록파무용단장, 행원상에 우순기 진해문화원장이 선정됐다. 또한 황원철 창원대 명예교수가 특별상 수상의 영광을 가져갔다.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는 앞으로도 산해원문화상의 역사와 의미를 잘 계승하도록 정성을 다하며, 시상을 계기로 지역 예술인들의 삶이 더욱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남 사찰 체험 관광사업 활성화 된다

문화사업단 · 전남관광재단 MOU
정책발굴, 협력사업 공동 추진키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전라남도관광재단은 12월 5일 불갑사 설선당에서 '전남 전통사찰을 활용 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지역 사찰을 활용하는 체험관광사업의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과 전라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신)은 12월 5일 불갑사 설선당에서 '전남 전통사찰을 활용 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문화사업단과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 전통사찰 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전남 전통사찰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마케팅 공동 추진 △전남 전통사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타 두 기관의 상호 지속성장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대우 스님, 김한일 문화사업단 사무차장, 김영신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박근영 기업육성팀장 등이 참여했다.

만당 스님은 "전남 관광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남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문화사업단도 한국 불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사업이 더욱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전남을 거점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지역관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신 대표이사도 인사말에서 "전남과 저희 재단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휴식이 필요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과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전남은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이 가장 많은 26곳이며, 사찰을 방문한 관광객 또한 작년 기준 748만명으로 집계될 만큼 사찰이 전남 관광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 '남도 천년고찰 세계명상관광'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사업단과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카쉐어링 플랫폼 '쏘카'와 각각 업무협약을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및 전라남도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망을 확대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중앙승가총동문회장에 성관 스님

12월 4일 충북 옥천명가서



태고종 중앙승가총동문회장으로 현 회장인 성관 스님〈사진〉이 재임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회장 성관 스님, 와룡사 주지)는 12월 4일 충북 옥천 명가에서 2024년 총회 및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현 회장 성관 스님 태고종 중앙승가총동문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성관 스님은 "갑진년을 잘 회향하고 동문회 발전에 더욱 힘쓰자"고 인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중앙승가강원은 종단 인재 산실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축하하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해인사 승가대학 '임상수행' 입재

12월 3일 정토마을서



(재)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원장 능행 스님)이 12월 3일 원내 대강당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보디샤트바 임상수행 입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임상수행'은 승가대 졸업을 앞둔 대교반 학인스님 12명이 참여하는 과정이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7일간 호스피스전문병원 (재)정토마을 자재병원 호스피스 환자 돌봄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창노인복지관 김장김치 나눔행사

11월 28일 100세대에 전달



선운사 복지재단(이사장 경우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해봉 스님)이 11월 28일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담근 2300포기의 김장김치는 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로식당과 지역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관장 해봉 스님은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향일암·보문복지회 자비 김장나눔

불우이웃 · 사회복지시설 전달



겨울철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축제가 열렸다.

여수 향일암(주지 연규 스님)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는 12월 4일 '2024 자비나눔 김장대축제'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보문복지회 임직원과 금호피앤비화학, 자원봉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해 3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궜다. 김장김치는 여수 관내 사회복지시설 9곳, 읍면동 경로당 530곳에 전달됐다. 양행선 전남지사장

청주 용화사, 자비의 김장나눔

11월 30일~12월 1일 경내서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11월 30일~12월 1일 경내에서 '2024 용화사 자비의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새터민 20명, 다문화가정 10명 등 60명의 대중이 함께 담근 1000포기의 김장김치는 새터민과 함께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용화사 신도회는 연탄 1000장을 마련해 거동이 불편한 불우이웃에 나누기도 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덕원사, 지역 이웃 김장김치 나눔

12월 1일 경내서 김장 행사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12월 1일 경내에서 이삼성 울산외국인센터 이사장과 강한설 덕원사 신도회장 등 불자 100여 명과 함께 김장김치 1300포기를 담갔다.〈사진〉

이날 만든 김장김치 중 150박스는 울산 외국인센터를 통해 지역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덕원 스님은 "올해로 16번째인 김장김치 행사를 매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위키백과 '달라이라마=정치인' 불교 왜곡

불교 교리 왜곡 정보 게시
이용자 수정 가능의 부작용
달라이라마 영적 가르침 축소
"균형 잡힌 정보 전달 필요"

박정현 객원기자


위키백과가 불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게시했다. 사진출처=월드 릴리전 뉴스

세계적 정보 공유 플랫폼 '위키백과'가 불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게시해 논란이다. 위키백과가 정책 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출처만 취급한다'고 내걸어 왜곡된 정보가 사실로 오인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종교 전문 사이트 '월드 릴리전 뉴스(World Religion News)'는 11월 2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최근 위키백과가 불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다수 게시했다"며 "불교의 다채로운 교리를 왜곡해 그릇된 불교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월드 릴리전 뉴스는 "위키백과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취급한다면서 대부분 서구의 연구나 분석에 치우친 정보만을 제공한다"면서 "동양에서 기인한 불교의 영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위키백과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불교와 같이 양상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월드 릴리전 뉴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위키백과가 일부 주류 전통 불교에만 집중해 가치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교는 그 뿌리가 깊고 특히 선종, 티베트 불교, 일련정종, 테라바다 등 여러 전통으로 분화돼 각기 다른 실천적 가르침을 전한다"며 "위키백과는 이런 불교의 전통과 다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에만 집중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낮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키백과가 불교에 관한 논란, 역사적 관점에만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윤회' '업' '깨달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실제 위키백과는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스승 달라이 라마가 전 세계인에게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을 다수 생략한 채 중국과 갈등을 맺는 정치적 인물로 서술했다.

월드 릴리전 뉴스는 "이 같은 편향된 서술은 달라이 라마를 단순히 정치적 인물로 묘사해 그가 전한 종교적 메시지들을 지운다"면서 "또한 위키백과에서 달라이 라마 서술에 인용한 중국 국영 매체는 그의 행보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달라이 라마를 정치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그릇된 정보는 불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위키백과는 정보 전달 매체라는 책임을 갖고 정보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매체는 "위키백과는 불교와 같은 다채로운 종교를 다룰 때 더욱 균형있고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며 "불교의 영적 차원과 전통을 존중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해 정보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IBEC, '룸비니 가든' 프로젝트 참여

유럽 최대 불교공원 조성
첨단 불교 교육시설 건설도

국제불교교육센터(IBEC)가 유럽 최대 불교공원으로 거듭날 스페인의 '룸비니 가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IBEC 관계자는 12월 3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지난 11월 30일 스페인 카세레스에서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을 확정짓고 향후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중국, 홍콩, 네팔, 부탄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지원으로 성사됐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다. 첨단 불교 교육시설 건설이 포함된 프로젝트는 IBSC(International Buddhist Studies College, 태국)와 SSBU(Shan State Buddhist University. 미얀마), SIBA(SIBA Campus, 스리랑카), IBEC 미얀마 등이 지원한다.

사야도(Sayadaw) IBEC 소속 프로젝트 책임자는 룸비니 가든 내 미얀마 사원과 슈웨다가온 파고다 복원 건축을 담당했다.

당초 '룸비니 가든 프로젝트'는 스페인 환경 규제에 따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했고 필요한 건축 승인까지 받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스페인에 조성될 룸비니 공원 조감도를 든 프로젝트 관계자들. 사진출처=MOI

日, 사후 준비하는 '사찰 종활' 서비스 등장

지역 사찰 연계해 장례 지원
고령자 사회문제 해결 기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인 '종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사찰과 노인들을 연계해 종활을 지원하는 불교계 회사가 출범했다. 일본의 언론 'PR 타임즈'는 11월 26일 스님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되는 주식회사 'OTERA'에 대해 보도했다.



주식회사 'OTERA'의 메인 홈페이지. 사진출처=홈페이지 화면 캡처

OTERA는 '사찰을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를 목표로 사찰이 지역의 고령자 종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 회사는 무연고자 장례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이사인 타케다 케이 스님은 "지역사찰과 연계해 고령자의 종활을 돕는 서비스 '사찰에서 종활'을 간토 지방에서 먼저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찰에서 종활'은 지역사찰의 역할과 가치를 되살려 종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OTERA 측은 "신도를 위한 종활 지원은 독거노인을 비롯해 종활이 익숙치않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서비스"라며 "연계된 사찰을 통해 종활전문상담가, 스님들이 종활 무료 상담에 대응한다"고 전했다.

종활 서비스는 개인 희망에 맞춰 사찰과 연계해 생전에 장례를 준비할 수 있다. 장지 마련과 사후 49재, 기제사 등 사찰에서 가능한 불교적 종활 준비가 가능하다. 현실적인 부분인 상속, 생전 정리, 사후 사무 위임 등의 법률적 지원까지도 서비스한다.

OTERA 측은 종활 서비스가 지역사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에 기반한 신도관리 체계는 전통적인 것으로 핵가족화와 도시 집중 현상이 벌어지는 현대에 들어서 그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 해결에 종활 지원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타케다 케이 스님은 "스님으로서 지역사회 노인들과 자주 만나며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상담을 자주 받았다"면서 "전통적인 신도 관리 체계가 약화되고 사찰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해결책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여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사찰의 운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종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장차 간토 지방을 넘어 일본 각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타케다 케이 스님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령자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연계된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스님과의 정기적인 연락 등을 실시, 사회문제로 부각하는 고령자의 고독사나 고령자 우울증 등의 외로움을 달래고 사찰이 가진 역할을 다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사찰서 시신 80여 구 발견

11월 27일 현지 특별보도
시신 신원 확인 조사 中


사찰에서 발견된 시신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태국 북부지역 사찰들에서 매장되지 않은 시신 80여 구가 발견됐다. '주간 방곡' '방콕 포스트' 등 태국 언론들은 11월 27일, 사찰에서 발견된 시신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지난 20일 태국 캄펭펫 주의 한 사찰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매장되지 않고 야외에 노출된 시신 12구를 찾아냈다.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은 "모든 시신은 유족이 자발적으로 기증했다"고 밝혔다.

추가 수색을 시작한 경찰은 피칫주의 파 나콘 차이보본 사찰에서 시신 41구를 추가 발견했다. 또한 인근의 방문낙 지역 사찰에서도 시신 32구를 찾아냈다. 각 사찰에는 시신들에 대한 유족의 기증동의서가 함께 보관돼 있었다.

태국 경찰은 파 나콘 차이보본 사찰의 주지 프라 아잔 사이폰 판냐티토 스님에게 진술을 얻었다. 경찰 측은 "스님에 따르면 해당 시신들은 대부분 사망한 제자 혹은 제자의 친척들"이라며 "사찰의 대중스님들이 시신을 매장 혹은 화장하지 않고 보존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시신이 발견된 사찰들은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 했다"고 전했다.

발견된 시신들은 당국의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후 각 사찰의 묘역에 매장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영화 '대가족', 불교 자비로 가족을 보다

[인터뷰] 양우석 영화감독

가족의 '본질' 자비로 해석해
3대 가족의 성장 드라마 담아
"진정한 가족의 의미 찾을 것"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피만 섞였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와 연민, 그리고 응원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모두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죠."

영화 〈대가족〉의 메가폰을 잡은 양우석 감독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머리를 풀었다.

양 감독은 "'가족'이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문제"라며 "이제 우리가 '가족'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야할 때가 온 것 같아 영화 〈대가족〉을 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 〈대가족〉은 '가족'의 본질을 불교의 '자비'로서 풀어낸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즉 함무옥(배우 김윤석)과 무애 스님(함문석, 배우 이승기)의 스토리에서 드러난다. 함무옥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전형적인 아버지 캐릭터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아들 함문석은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와의 갈등을 계기로 출가해 '무애 스님'이 된다.

함무옥의 가족은 '대를 이을 핏줄'이고, 함문석에게 가족은 '괴로움'이다. 하지만 민국과 민선이라는 출가 전 무애 스님의 '아이'들이 등장하자 상황은 급변한다.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무옥과 무애 스님은 마음을 나눌 '자비'를 가진 존재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후 함무옥은 핏줄을 뛰어넘고, 무애 스님은 가족 속에서 '부처님'을 발견한다.

양 감독은 "영화 〈대가족〉은 가족 영화인 동시에 3대 가족이 성장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성장 드라마'기도 하다"며 "특히 부처님을 경전으로만 접한 무애 스님이 자비와 연민을 가진 가족들이야말로 부처님이라는 점에서 '불교적 성장'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 〈대가족〉의 메가폰을 잡은 양우석 감독, 불교의 '자비'로 가족의 본질을 해석해냈다.

영화 〈대가족〉의 제목에서도 가족에 대한 양 감독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양 감독은 "대가족의 '대'는 대할 대(對)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우리가 제일 먼저 대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점점 더 확대되다 보면 모두가 '가족'이 되기도 한다. 그게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불법(佛法)의 연기와도 맞닿아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로, '신파'적 요소가 있냐는 우려에 양 감독은 "신파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배제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난다면 그건 영화 때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생각나서 그런 거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손잡고 와서 영화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양 감독은 "영화 〈대가족〉은 어지러운 시국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가족·힐링·코미디 영화"라며 "가족과 함께 극장에 와서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우석 감독은 영화 〈변호인〉(2013), 〈강철비〉(2017) 등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선보여왔다. 오는 12월 11일 개봉하는 영화 〈대가족〉은 그의 첫 번째 가족·코미디 영화다.

조계종 성보박물관, 관장회의 정례화

11월 28일, 종로 전법회관서
2025년 주요 사업계획 확정
봉녕사 세주묘엄박물관 승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주관으로 열린 성보박물관 관장회의와 협회 정기 총회에서 관장회의의 정례화를 결정하고 성보박물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성보박물관 관장회의를 개최했다.〈사진〉 회의에는 수덕사근역성보관장 주경 스님, 불갑사 수다라성보관장 만당 스님,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 월정사성보박물관장 해운 스님, 배영일 마곡사성보박물관장 등 전국 성보박물관 관장과 학예연구사 등 2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관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성보박물관 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성보박물관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내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재구성, 회칙 개정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협회는 권역별 9개 성보박물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재구성하고 사무국은 불교중앙박물관과 수덕사근역성보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봉녕사 세주묘엄박물관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성보박물관 전시 및 학술 활동 지원, 국내 교류 답사 추진, 박람회 참여, 우수 성보박물관 포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보박물관협회는 2008년 관장회의 구성 후 2015년 협회로 발족해 매년 회의를 통해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는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일대를 답사하며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성보박물관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명승 지정

빼어난 산세와 흥국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2월 2일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은 다양한 풍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다.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 인근도 자연경관이 잘 보존돼 있어 높은 역사·문화·학술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내영 기자


영취산 기암괴석과 진달래 군락.

서울·경기·충청 괘불 특징 고찰 학술총서 발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12월 2일
조형적 특징 살핀 심화연구 결과물


'한국 괘불의 미 3, 4'. 사진출처=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이 12월 2일 "우리나라 괘불의 조형적 특징을 지역별로 고찰한 학술총서 '한국 괘불의 미 3: 충청지역'과 '한국 괘불의 미 4: 서울·경기지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각 사찰에 소정된 괘불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조사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성보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대형불화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부터는 그간 조사 결과를 미술사적 관점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괘불의 조형적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는 심화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그 연구결과를 담은 '한국 괘불의 미' 경상(2022년)과 전라(2023년)지역 편을 발간하고, 심화연구의 마지막 결과물로 충청과 서울·경기지역 편을 발간하게 됐다.

제3편 충청지역에는 사찰에 소장된 국가지정 괘불 15점의 특징과 역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이곳에는 괘불 조성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괘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남아있다.

'장엄신(莊嚴身,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이라는 독특한 도상도 충청지역 괘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괘불의 출현과 도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제4편 서울·경기지역에는 국보·보물로 지정된 괘불 6점의 도상 분석, 시주자, 화승, 채색 재료와 기법에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선 초기부터 시행된 억불숭유 정책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많은 사찰이 철폐됐지만, 왕실 불사는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왕실 발원 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수준 높은 괘불이 조성됐다. 19세기 이후에는 괘불 조성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근대기 이후의 괘불 양식을 주도했다.

특히 이번 편에는 괘불 심화연구를 마무리하며 괘불의 시주자와 시주 물품, 범자, 문양 등에 관한 고찰을 특별기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학술총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https://portal.nrich.go.kr/)에도 공개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누리집 내 '괘불 갤러리'에서 국가지정 괘불의 고화질 사진과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칠성여래도' 국내 반입 중 도난

국가유산청, 12월 3일
누리집에 도난 정보 공고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

사찰 내 칠성각에 봉안됐던 불화로 추정되는 '칠성여래도'가 국내 반입 과정에서 도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2월 3일 개인 소장 '칠성여래도'의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유관단체 등에 알렸다.

이번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이다.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제작자 및 봉안됐던 사찰 등에 대한 정보는 화기에 기록돼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 불화는 한국인 구매자가 올해 2월 미국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해 국내에 반입했다. 그러나 운송 과정에서 불화를 배송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했고, 올해 11월 국가유산청에 접수됐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 회수 강화를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 080-290-8000)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내영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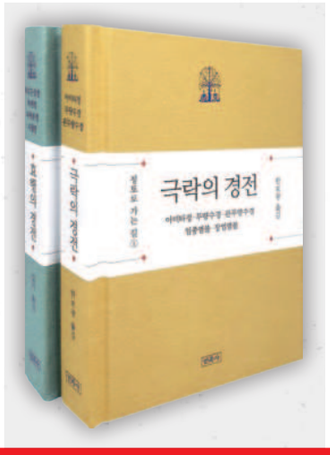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12/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상가붓다의삶	아날라요/김종수	불광출판사
2	인간붓다:신화와설화를걷어낸율장속붓다의참모습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3	위빳사나수행28일	자나까비왐사/케마	한국빠알리성전협회
4	들숨날숨에마음챙기는공부(초기불전002)*개정판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불교와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21)불교의지혜와서양의과학이만나다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6	불멸(3)아무래도아무렇지않은	이각	지혜의눈
7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8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생각사용설명서(정신과의사가들려주는)	전현수 지음	불광출판사
10	지금이순간을살아라(개정판)	에크하르트톨레	양문

책세상

스승 미당 향한 헌정…제자는 '미당학' 꿈꾼다



서정주 학파 1 · 2권
윤재웅 지음
동국대 출판부
각권 2만원



질마재 이야기
윤재웅 지음 · 박성기 사진
동국대 출판부
1만9800원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최근 스승 미당 서정주를 연구한 학술서 〈서정주 학파(전 2권)〉와 문학 로드 에세이 〈질마재 이야기〉를 내놨다. 윤재웅 총장은 미당의 마지막 제자이자 수제자였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윤재웅 총장, 미당 서정주 관련 학술서 및 문학 여행기 출간해
미당 기원 찾는 '질마재 이야기'
'서정주 학파' 미당 연구 집대성

미당 서정주(1915~2000)는 한국 현대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이다. 그가 구사한 시어(詩語)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연마하고 벼리냐에 따라 이처럼 수려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한 평론가는 "미당의 시적 언어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언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미당 서정주는 1960년 동국대 교수로 부임해 '동국 문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던 중 말년에 들인 제자가 바로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 국문과에 입학해 마지막 제자로 수학했다.

실제 윤재웅 총장의 술회에 따르면 "스승이 만년일 때 자택에서 함께 기거하는 복도 부렸다"고 한다. 해로한 아내와 사별한 슬픔을 달래주는 말벗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평평히 다지고 청소하며 편안하게 모셨다. 나이 든 스승과 나이 들어가는 제자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팔할'이 시 아니면 시인에 관한 이야기였고 서로가 지닌 문향을 받들고 다독이면서 '금란지교'는 무르익었다. "부인이 떠난 지 두 달 만에 운명한 시인의 빈자리는 허망하지 않아 미래가 남았다"는 게 윤재웅 총장의 회고다.

모교의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여 년간 후학을 길러온 윤재웅 총장은 최근 스승 미당 서정주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연구서와 문학 여행기를 출간했다.

'서정주 학파' 탄생을 꿈꾸며

윤재웅 총장이 발간한 〈서정주 학파(전 2권)〉는 자신이 스승 미당 서정주의 문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연구논문 11편을 담았다.

윤재웅 총장은 미당의 애제자이자 수제자로서 예술적 기재(器才)와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성취한 스승의 작품에 집요하게 천착해 왔다. 제자는 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유품들을 정리해 동국대 도서관과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남현동 자택에 나눠서 보관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는 전집 20권을 새로 출간했다. 미당기념사업회를 만들어 20년 가까이 추모행사를 열어왔다.

그렇기에 〈서정주 학파〉는 두텁고 단단한 또 하나의 헌정(獻呈)이다. 학자 자신의 존경과 열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영구적으로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이자 지적 자산으로서 '미당학'을 구축하기 위한 큰 걸음이기도 하다.

〈서정주 학파〉는 미당 문학이 가지는 위대한 성취의 속살을 파고들고 뼈대를 탐구한다. 미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는지를, 작품 하나하나의 역사적 배경과 내면의 기저를 조명하며 자세하고 꼼꼼히 서술한다.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미당학'의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 '서정주'란 이름은 문학사에서 충분히 값지고 "언젠가 이 땅에 서정주 학파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다. 작은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학술논문을 한 자리에 모았다. 섬세함과 황홀함의 극치이자 모국어의 절정이 국민적 관심사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저자는 "한 시절 밤새워 미당을 읽어보라"고 한다. 미당을 오래 읽으면 삶을 예술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다. 그리고 모두 '미당 서정주'가 되어 주길 바란다.

"앞서 가는 자, 나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서정주 학파."

미당 서정주 문학 기원을 찾다

윤재웅 총장이 〈서정주 학파〉와 함께 발간한 〈질마재 이야기〉는 스승 미당의 문학적 기원을 찾는 로드 에세이다.

미당의 고향 질마재 마을은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라는 한국시의 명문장의 탄생지이자 시집 〈질마재 신화〉를 잉태한 곳이다. 질마재 마을에서 여정을 시작한 저자는 줄포, 곰소, 고창읍성, 선운사, 하전 개펄 등을 찾아가 시인에게 정신적·문학적 영향을 인연을 좇으며 서정주 문학의 기원을 탐색한다.

미당의 탄생지인 질마재 마을에선 시인의 외롭고 가난한 천성을 지니게 된 흔적을 더듬고, 칠산 바다에선 마음의 번뇌를 식히던 쓸쓸한 충만의 바다를 관조한다. 줄포와 고창에선 청소년 미당의 항일정신과 방황하던 질풍노도의 시기를 돌아보고, 선운사에서 처연한 동백의 붉은빛 낙화와 자신을 시인의 길로 인도한 석전 박한영과의 인연에 주목한다. 그리고 동리국악당에서 미당의 시가 도달한 전통의 세계가 가야금과 판소리로 이어진 전통 소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저자가 훑어가는 미당의 지리적, 정신적 여정은 그대로 한 편의 시이고 감성으로 버무린 다큐멘터리이다. 저자는 스승 못지않은 아름다운 문장을 앞세워 미당의 시적 성취에 이르는 단단한 여정을 때로는 번민하는 시인의 마음으로, 때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철인(哲人)의 육성으로 영롱하게 색칠한다. 여기에 미당 시문학의 질감과 마음결을 헤아리듯 곳곳에 배치된 인상적인 사진들도 아름다운 시문학의 또 다른 절경이다.

이 책은 미당 문학정신의 기원을 찾아가는 입문서이기도 하다. 미당의 시를 탄생하게 만든 자연환경, 그가 만난 사람들과 그가 겪은 사건의 현장 탐방을 통해 명시 감상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해 보도록 구성돼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읽고 책에서 언급된 현장을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한국 탐미시의 대가가 문학적 영향을 받은 지역과 인물을 찾아가는 인문교양 에세이답게 문장과 사진에서 빼어난 아름다움의 질감을 더한다. 저자의 질마재 마을과 고창 일대를 세심하게 훑어본 시적인 문장도 발군이지만, 여기에 더해 질마재 마을의 시적 운치를 더하는 장치로 고창 출신 사진 에세이스트 박성기의 사진도 빼놓을 수 없다.

수천 명의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사유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
특별한 '서양철학개론' 강의!

'지식'이 되는 철학에서 '지혜'가 되는 철학으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 주는 서양철학 24강!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서양철학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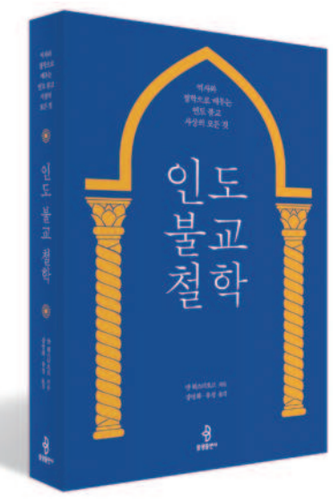
미네소타 주립대학
서양 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
256쪽 | 18,000원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지는
불교의 세계, 광활한 사유의 지평을
이 한 권에 담았다!

2,600년 불교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황금시대
불교사 명장면들로 그려 낸 인도 불교철학의 정수!

역사와 철학으로 배우는
인도 불교 사상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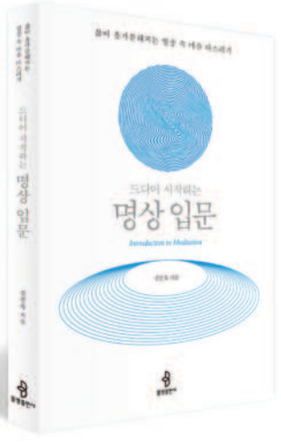
인도 불교 철학

얀 웨스터호프 지음
강병화·유경 옮김
600쪽 | 30,000원

명상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명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
단단한 마음의 코어 근육으로
삶이라는 바다에서 우아하게 서핑하기

삶이 홀가분해지는
일상 속 마음 다스리기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신진욱 지음
232쪽 | 18,000원

명상 입문자들을 위한
저자 강연 진행

일시 2024. 12. 14.(토) 오후 3시
장소 명상센터 센터원 Center One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11)
접수 및 문의 불광출판사 010-3322-8940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부처의 경지로 이끄는 여섯 글자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법장 지음
운주사 / 2만3천원

육자진언 수행법 · 수행체계 총망라
티베트 경론서 육자진언 해석하고
수행법 제시 육자진언 수행지침서
최초 설한 인물은 석가모니 부처님
현 시대에 적합한 수행법으로 정립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옴 마니 반 메훔',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 때마다 가장 많이 독송되는 진언 중 하나이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이라는 긴 이름으로도 불리는 육자진언이다. 불교국가인 티베트나 부탄, 그리고 몽골, 대만 등지에서도 이에 대한 뿌리 깊은 신앙과 오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티베트의 경우 사원 주변이나 성지에 '옴마니반메훔'을 한 자 한 자 돌에 새기고 채색하여 안치하거나 이것이 새겨진 마니륜을 돌리면서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육자진언은 삶의 일부이며 오래된 '수행'이다. 그만큼 티베트에는 육자진언과 관련된 경론이나 수행법이 다양하게 전해져오고 있다.

책 〈육자진언의 수행체계〉는 티베트불교의 전통인 육자진언 수행법과 수행체계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육자진언 연구서이다. 책은 한역에 비해 육자진언 관련 경론들이 상당수 잘 보존되어 있는 티베트 경론에서 육자진언 해석을 총망라하고 그 속에 담긴 수행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한 육자진언 수행지침서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수행과제과 방법들은 불교의 수행 목표인 해탈과 부처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육자진언은 대자대비의 상징인 성관자재의 진언 중 하나이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후대의 어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진언을 금구(金口) 등으로써 최초로 설한 인물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육자진언수행에 대한 신심과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의 신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수행을 해 나간다면 시종일관 정진해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지향하는 바 수행의 결실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자진언수행의 기원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육자진언 수행의 결실을 이루는 근원적 토대이자 원동력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책은 이처럼 대승불교권에서 일상화되고 중요시되는 육자진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서로, 두 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진각종의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 수행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제1장에서는 티베트 경론에 나타난 육자진언의 전거를 밝히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자진언에 관한 티베트 경론은 총 39종이며, 이를 육자진언의 네 가지 주제인 기원, 공덕, 상징적 의미, 수습법 및 염송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경전 분석을 통해 육자진언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육자진언은 명호주의 왕으로서 그 수행의 공덕이 수승하며, 육자진언은 '보리심'과 '공성을 요해하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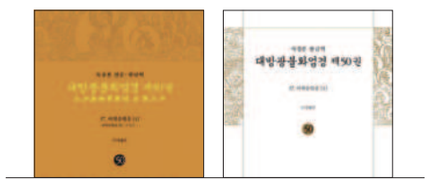
즉 육자진언수행은 결코 범부들이 무병장수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차원으로 하는 하근기의 수행이 아닌, 대승불교 수행의 최상의 목표인 자리이타의 완성, 즉 해탈과 부처님의 경지로 나아가는 수승한 공덕이 있는 수행법이다.

제2장은 티베트 경론을 중심으로 한 육자진언의 수행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현 시대에 적합한 수행법으로 정립했다. 티베트 경론의 육자의 성취법 등에서 제시하는 수행과제는 수습을 병행한 염송수행으로, 수습 및 염송 준비 → 본 수습 및 염송 → 수습 및 염송의 마무리 실천행의 순서로, 단계별 수행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하지만 티베트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누구나 쉽게 따라 익힐 수 있도록, 반드시 익혀야 할 수습 및 염송 과제를 적절한 수준과 분량으로 정리해 제시한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은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염송하기 쉽다. 이렇게 수행하기 쉽지만, 순수한 마음동기, 바른 신심, 간절한 정성, 쉼 없는 정진력의 바탕 위에 이를 꾸준히 염송해 나간다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의 도량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덕은 결코 적지 않다. 저자는 책을 통해 현대인들이 쉬우면서도 바른 수행법을 찾아 일상의 평온함과 행복, 근원적인 목표도 성취하기를 기대한다.

저자인 법장 스님은 1995년 사미니계를, 2001년에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운문사 승가대학과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2007년 명성 강백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같은 해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주로 인도 다람싸라에 소재하고 있는 '게덴 최링'이라는 여성 출가자 승가대학에서 수학했다. 2023년 8월에 위덕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로 활동하면서 티베트 경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역주서에는 제5대 뻰첸라마 롭상예쎼의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있고, 학회지 게재 논문으로 '육자진언(六字眞言)의 표기와 명칭에 관한 고찰'과 '자립논증파(自立論證派)의 십이연기 해석 연구-제쭌 최끼곌첸의 〈연기(緣起)의 총의(總義)〉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해주 스님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중 제50권 발간



대방광불화엄경 독송본 전 80권 중 50권
실차난타 한역, 해주 스님 한글역
담앤북스 / 1만2천원

여래출현품 총 3편 중 1편 수록
여래의 공덕과 지혜 자비 드러내
"신행 · 해탈에 큰 의지처 되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해주 스님(수미정사 주지)이 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한 화엄경 수행서 〈독송본 한문·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과 〈사경본 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을 출간했다.

수미정사 불전연구원은 불자와 대중을 위해 독송본·사경본 〈화엄경〉을 출간하고 있다. 2020년 8월 1~5권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매달 독송본과 사경본 각 한 권씩을 출간하고 있으며, 2027년 5월경 총 80권으로 완간할 예정이다.

〈독송본 한문·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은 본문 왼쪽 면에 한문 원문을, 오른쪽 면에는 한글 번역을 수록했다. 한문 원문의 저본은 고려대장경의 조선시대 인경본이다. 저본에서 누락되거나 글자가 다른 부분은 고려대장경 각 권 말미에 교감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경문의 전후 내용을 살펴 여러 교감본을 참조했다. 한글 번역은 기존 번역본과 강설집을 참고하되 해석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해주 스님의 해설을 붙였다.

〈사경본 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50권은 독송본에 수록된 한글 번역을 사경하기 쉽게 편집했다. 사경할 때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우고, 책장이 잘 펴지게 사철제본 방식으로 제작했다.

〈화엄경〉으로 널리 알려진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님이 성취한 깨달음의 세계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법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다. '경전 가운데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화엄경〉은 8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과 심오한 내용으로, 선지식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기 힘든 경전이다.

이번에 출간된 제50권에는 '여래출현품(1)'이 수록됐다. '여래출현품'은 총 3권으로,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베푸신 온갖 공덕과 지혜와 자비를 낱낱이 드러내는 품이다. 보현보살이 여래 출현의 법상(法相)과 여래의 신업(身業)을 열 가지 비유를 들어 밝히고 있다.

박재완 기자

사람 속 여행하며 찍은 쉼표



마음의 쉼표 하나
최명숙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 1만3000원

"이다음에 우리 딸, 네가 가고 싶은 곳에 혼자 찾아갈 수 있게 잘 크고, 이름이 세상에 나는 것보다 사람의 맘을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엄마는 그게 늘 바람이야. 기도이기도 해."

보리수아래 대표 최명숙 작가는 초등학교 1학년 등굣길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 듣던 이 말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글을 써왔다. 여행길에서 만난 풍경들과 귀향 이야기, 화두처럼 찾던 길에 대한 단상들,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아릿한 이야기까지 세상을 향한 나지막한 목소리를 글로 표현해온 그가 첫 수필집 〈마음의 쉼표 하나〉를 펴냈다. 남들보다 느리기에 더 잘 보였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고마운 이들에게 보낸 편지, 잊지 못한 사랑 이야기, 길 끝나는 곳에서 만난 산사와 산사에서 생각났던 영화 한 편,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공간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감성적 시선으로 지나온 일상을 되짚으며 과거와 현재를 지나 내일의 의미까지 생각한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작가는 스스로에게 수필집에서 세상이 아프고 힘들고 작아 보여도 잠시 멈춰 서면 그지없이 아름답다며 간절하고 애틋한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책 속에 실린 잔잔한 흔적들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아, 나도 그랬어'라며 공감의 미소를 짓고 숨찬 언덕을 올라가는 누군가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세상의 쉼표 하나가 되길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까르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까르마
'업보'와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까르마'에 대해 인도의 학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신국판/무선/212쪽/값 15,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가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염송하기가 용이하면서도 그 공덕이 커서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방편이다.
법장 지음/신국판/무선/324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전 영축총림 율주 중산 혜남 대종사

“초심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혜남 대종사는… 1943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963년 관룡사로 출가했다. 1967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서 정진한 뒤 1977년 해남 대흥사 강원에서 운기 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한 이후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과 영축총림 율주를 역임했다. 지금은 마치지 못한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문관에서 수행 중이다.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난다.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한다.

제방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꼽히는 전 영축총림 율주 중산 혜남 대종사를 뵙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연락을 드렸지만,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무문관에 계시니 연락이 될 리 없었고 해제 후에는 전국을 다니며 불자들을 제접하는 일정이 많아 뵐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드리니 또 무문관에 가신다고 해 급하게 차를 달렸다.

설악산의 가을은 눈부셨다. 형형색색의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얼굴을 내밀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겨울이 얼씬도 못 할 정도.

바람과 함께 백담 계곡을 달렸다. 물빛은 찬란했다. 백담(百潭) 하나 하나에 생명이 스며들어 있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도 활기가 가득하다.

자연이 만들어 낸 그림을 보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백담사다. 백담사에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처 무금선원(無今禪院)이 있다. 1971년 당시 조계종 종정이던 고암 스님이 신흥사 교구에 선원건립의 원을 세웠고 이 뜻이 전법제자인 성준 스님에 이어졌으며 다시 설악무산 스님이 원력을 이어받아 1998년 무금선원을 열었다. 무산 스님은 오늘날의 설악산 불교를 연 개산조다.

“천방지축(天方地軸) 기고만장(氣高萬丈)/허장성세(虛張聲勢)로 살다보니/온 몸에 털이 나고/이마에 뿔이 돋는구나/억!”이라는 열반송(涅槃頌)을 남기고 2018년 5월 26일 입적한 설악 무산 대종사는 평생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백담사 무금선원과 신흥사 향성선원을 개원하는 등 설악산을 지키며 선풍(禪風)을 진작했다.

‘무금’은 ‘무고무금(無古無今)’을 줄인 말로 ‘본래 성품은 맑고 고요해서 예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뜻이다.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선원’이라고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일거에 꿰뚫어버리는 선원’이라고도 한다.

무금선원은 무문관(無門關)과 기본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문관은 말 그대로 폐문정진(閉門精進)하는 곳이다. 매철 10여 명의 스님들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수행한다. 두 평 크기의 독방 10칸의 문은 모두 바깥에서 잠겨 있다. 하루 한 번 오전 11시가 되면 음식이 들어가는 공양구(供養口)만이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

‘무금선원에 앉아/내가 나를 바라보니//기는 벌레 한 마리/몸을 폈다 오그렸다가//온갖 것 다 갉아먹으며/배설하고/알을 슬기도 한다’

무산 스님의 시 ‘내가 나를 바라보니’에는 무문관의 ‘결기’와 ‘고독’이 온전히 담겨있다.

동안거를 하루 앞둔 백담사는 차분했다. 11월 15일 결제법회에서 새 조실로 영진 스님을 추대한다는 안내 현수막마저도 흔들림이 없었다. 백담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당에서 혜남 스님을 만났다. 간절한 염원 끝에 만나서인지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하지만 반전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 나이가 되면 제일 잘하는 게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어디 뒀는지 잘 모르겠네. 하하.”

지팡이의 행방(?)은 금방 파악됐다. 지팡이를 다시 잡은 스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발이 네 개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걸어요. 하하.”

처음 발심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
본래부터 움직임 없는 것이 ‘부처’
초심을 생각하는 삶과 생활 돼야

2023년부터 안거에 무문관 정진
80세 노구에도 正覺 목포로 수행
“더 늦기 전에 화두와 한판 대결”

스님의 유쾌한 말씀을 따라 걷다 보니 백담사의 한적한 찻집이다.

“무문관이 바로 극락(極樂).”

젊은 수좌스님들도 힘들어한다는 무문관에 세수 80이 넘은 노스님이 입방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혜남 스님에게 단도직입으로 여쭈었다. 도대체 왜?

“여기 백담사 마당에 매월당 김시습, 설잠 스님의 시 ‘저물 무렵’이 적힌 시비(詩碑)가 있습니다.”

‘천 봉우리 만 골짜기 그 너머로/한 조각 구름 밑 새가 돌아오누나//올해는 이 절에서 지낸다지만/다음 해는 어느 산 향해 떠나갈거나//바람 자니 솔 그림자 창에 어리고/향 스러져 스님의 방 하도 고요해//진즉에 이 세상 다 끊어버리니/내 발자취 물과 구름 사이 남아 있으리.’

“설잠 스님의 시가 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좌의 마음, 운수납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가할 때부터 저의 목표는 도(道)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강사(講師)와 율사(律師)로 나름대로 잘 살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화두와 한판 대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하.”

혜남 스님은 2023년부터 무문관에 방부를 들이기 시작했다. 백담사스님들의 배려로 하안거와 동안거를 나고 2024년 여름은 천성산 조계암 무문관에서 정진했다. 그리고 다시 백담사로 왔다.

“이 나이에 큰 선방에 앉으면 오히려 대중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무문관을 선택했어요. 저 스스로 오롯이 화두에 집중할 수 있고, 대중들도 하루 한 끼 공양 외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서로 좋은 일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혜남 스님이 오현 스님의 시 한 편을 들려줬다. ‘마음 하나’라는 제목의 시다.

‘그 옛날 천하장수가/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한 티끌 겨자씨 보다/어쩌면 더 작을//그 마음 하나는 끝내/들지도 놓지도 못했다더라’

“달마 대사는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이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문관이야 말로 달마 대사의 말씀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보니 무문관이 극락입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나무도 좋고, 겨울에 내리는 눈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쌓이면 여기 마당은 마치 하얀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문이 잠겨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만의 극락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정신이 열리고 헐떡거림이 없으면 무문관이 가장 자유로운 곳입니다.”

혜남 스님은 “무문관에 다니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 더 짱짱해진 느낌이다.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신도들도 건강해 보인다고 말한다”며 웃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다. 왜 젊은 청년은 도인(道人)이 되기를 서원하며 출가했을까?

13면에 계속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백고좌

전 영축총림 율주 중산 혜남 대종사

“내 삶의 주인공 되기 위한 수행 정진을”

12면에 이어

살생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스님의 고향은 경남 창녕이다. “전형적인 선비”였던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자랐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은 전쟁으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어렵게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제도 교육은 더 받지 못했다. 한학(漢學)을 독학한 스님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삶에 빠지기 시작했다. 책에 빠져들수록 ‘영웅의 역사’ 뒤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

“한나라 고조나 당나라 태종 등 당대의 영웅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위 등극을 도왔던 핵심측근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장면들을 책으로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생사(生死)가 허망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문이 눈에 들어오면서 불교 경전도 볼 기회가 생겼는데 ‘살생(殺生)을 하지 말라’는 구절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많은 미생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절에서 정진하자고 생각했어요. 불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확신을 하게 됐죠. 불교라는 넓은 세계로 나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남 스님은 출가를 위해 창녕포교당으로 갔다. 거기서 만난 스님은 “출가를 하려면 관룡사로 가라”고 안내했다. 그래서 관룡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1963년의 일이다. 관룡사 사중스님에게 글을 배웠다. “경전보다 시와 소설 등 문학을 배우는 것이 더 재밌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군대를 가야 했다. 부산에서 군 생활을 하다 휴가를 맞아 찾은 절이 대각사다. 당시 대각사에서 포교를 하던 경우 스님의 폭포수 법문을 듣고 스님은 제대 후 다시 출가했다. 그리고 1967년 정식으로 계(戒)를 받았다.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을 보다가 졸업을 하지 않고 부산 기장 묘관음사 선방에 갔습니다. 향곡 스님께서 결제 도중에는 방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수좌가 발심하면 결제이고 한 소식하면 해제 아닙니까?’라고 하니 스님께서는 ‘허허 이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라며 결국 방부를 받아 줘 정진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하판이어서 힘든 소임을 일부러 살면서 정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 범어사 강원으로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스님은 5대 적멸보궁과 3대 관음도량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선지식(善知識)들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원(願)을 세우고 수행하고 또 정진했다. 그리고 다시 참선 수행의 길에 나섰다.



설악 무산 스님 동상 시비에 나란히 앉은 혜남 스님.

“인천 용화선원에 방부를 들여 전강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시심마(是甚麽) 화두를 들고 공부했는데 비교적 잘 됐습니다. 전강 스님께서 계속 같이 살자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해인사에서는 성철 스님 한 철 시자(侍者)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 해안사 선원에 가서는 성철 스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워낙 박학다식하셔서 여쭈고 싶은 것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제가 〈신심명〉과 〈증도가〉를 다 외웠습니다. 의심 나는 구절을 여러 번 여쭈었고 막힘없이 답을 주시던 성철 스님이 지금도 많이 생각납니다. 통도사 월하 스님께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중산(中山)’이라는 법호도 월하 스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산과 같은 수행자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혜남 스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스승은 운기 스님이다.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전강을 받은 운기 스님에게 경(經)을 배운 시간은 가장 행복했던 시기 중 하나다.

선원에서 정진을 이어가던 혜남 스님은 운기 스님이 해남 대흥사에서 강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짐을 쌌다. 강원을 졸업하고 선원까지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운기 스님에게 〈치문〉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화엄경〉까지 다 듣고 운기 스님에게 전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때 받은 법호는 ‘남주(南州)’다.

교학 모르고 참선수행은 반쪽짜리
역대 조사 선지식 모두 禪敎 겸수
계율, 물통 마개…느슨하면 물 새
지혜, 선정도 지계 없으면 ‘무소용’

혜남 스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본어로 된 불교 서적을 읽던 도중 답답함을 느껴 결국 유학길에 올랐다. 대정대학 동양학부에 입학한 스님은 불교와 유교, 도교를 다양하게 공부했고 여기에 더해 〈화엄경〉 공부에 매진했다. 10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곳은 해인사 강원 강주를 맡아 후학들을 제접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시 선원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선방에 다니지 못한 것이 계속 아쉬웠거든요. 인연인지 해인사 강주 제안이 들어왔고 그 뒤로도 법주사, 중앙승가대, 은해사 승가대학원, 통도사까지 계속 강원에 있게 됐습니다.”

스님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영축총림 율주로 추대된 것이다.

“저도 제가 율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중들이 요청을 하니 맡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율원을 다시 열고 학인들과 함께 공부하며 지냈던 시간도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백담사 무문관으로 향하는 혜남 스님의 모습.

“세상사 모두 구름 같은 것”

참선과 교학, 계율까지 회통한 혜남 스님에게 공부의 길을 여쭈지 않을 수 없었다.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학을 공부하고 참선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교학을 모르고 참선을 하는 것은 반쪽에 불과해요. 선이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해서 문자를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 조사 선지식들도 교학을 소홀히 하고 참선으로만 도를 성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과 교를 겸수(兼修)했습니다. 이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이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율(律)이었다.

“율(律)은 부처님 행(行)입니다. 계율은 물통을 꽉 죄는 데에 비유됩니다. 마개가 느슨하면 물통의 물이 샙니다. 교학으로 이룬 지혜와 참선으로 이룬 선정도 계율이 느슨하면 줄줄이 새게 돼요.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함께 이루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혜남 스님의 주전공이라 할 수 있는 〈화엄경〉의 핵심도 알고 싶어졌다.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입니다. 해석하자면 ‘보살 만행의 꽃으로 불과를 장엄한다’는 뜻입니다. 핵심 내용은 ‘통만법명일심(通萬法明一心)’, 즉 ‘만법을 다 통일시켜서 한마음을 밝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一體唯心造)’라고 했습니다. ‘만약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고 하거든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오직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납니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스님은 수행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수행이든 뭐든 젊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젊을 때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 생각해보면 너무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인연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본래성불(本來成佛)입니다. 우리는 본래 깨달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면 공부도 더 잘되지 않을까 합니다.”

혜남 스님은 특히 초심(初心)을 강조했다. 변치 않는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초심이 중요합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입니다. 산철이 되면 제가 자청해서 통도사성보박물관 사경반을 맡아 강의를 하나 합니다. 바로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법성게’ 첫 구절이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입니다. ‘법성은 원융해서 두 모습이 없다’는 말이죠. 이어서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모든 법은 움직임이 없어서 본래부터 적멸이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본래부터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입니다. 초심을 생각하는 삶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혜남 스님과의 인터뷰는 유쾌하면서도 진지했다. 노스님의 할과 방이 신선하기만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니 경내에 무산 스님 상(像)과 시비(詩碑)가 있다. ‘허물’이라는 시다.

‘남의 삶은 다 보이는데/내 삶은 보이지 않네//남의 죽음은 다 보이는데/내 죽음은 보이지 않네//그것 참 남의 허물은 다 보이는데/내 허물은 보이지 않네.’

혜남 스님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싶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찾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선방으로 가야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3개월간의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는 노스님의 뒷모습이 위풍당당하기만 했다.〈끝〉

유철주 / 작가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㉔ 칠불암과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한줄 요약
마애보살반가상은 칠불암을 직선으로 바라다보고 있다.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은 연관된 불상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은 관세음보살님이 칠불암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받아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중생을 살피는 모습으로 보인다.

남산 구름 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 아름다워라

칠불암의 불상을 설명하기 전에 칠불암의 아쉬움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겠다. 먼저 할 말은 참배 기도할 공간의 배려다. 마애불상 앞 밑에는 나무 데크로 기도할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절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마애불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한국의 화강암 불상은 쓰다듬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칠불암 불상은 누가 건든다고 무너지거나 상할 불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칠불암 마애불상은 신라 시대 조성할 때부터 본존불을 향해 사방불을 돌면서 기도하도록 해 놓은 모습이다. 지금의 참배 불자들이 본존불을 참배하며 사방불 주위를 돌면서 정근을 하거나 반야심경 봉독을 하며 기도한다면 신심이 얼마나 충만해질까. 이렇게 멋지고 특별하게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조성된 마애불상에 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일까. 불상에 해가 없다면 참배하는 불자를 위하여 신심이 충만 되고 무한한 가피의 공덕을 얻도록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남산을 불국정토로 가꾸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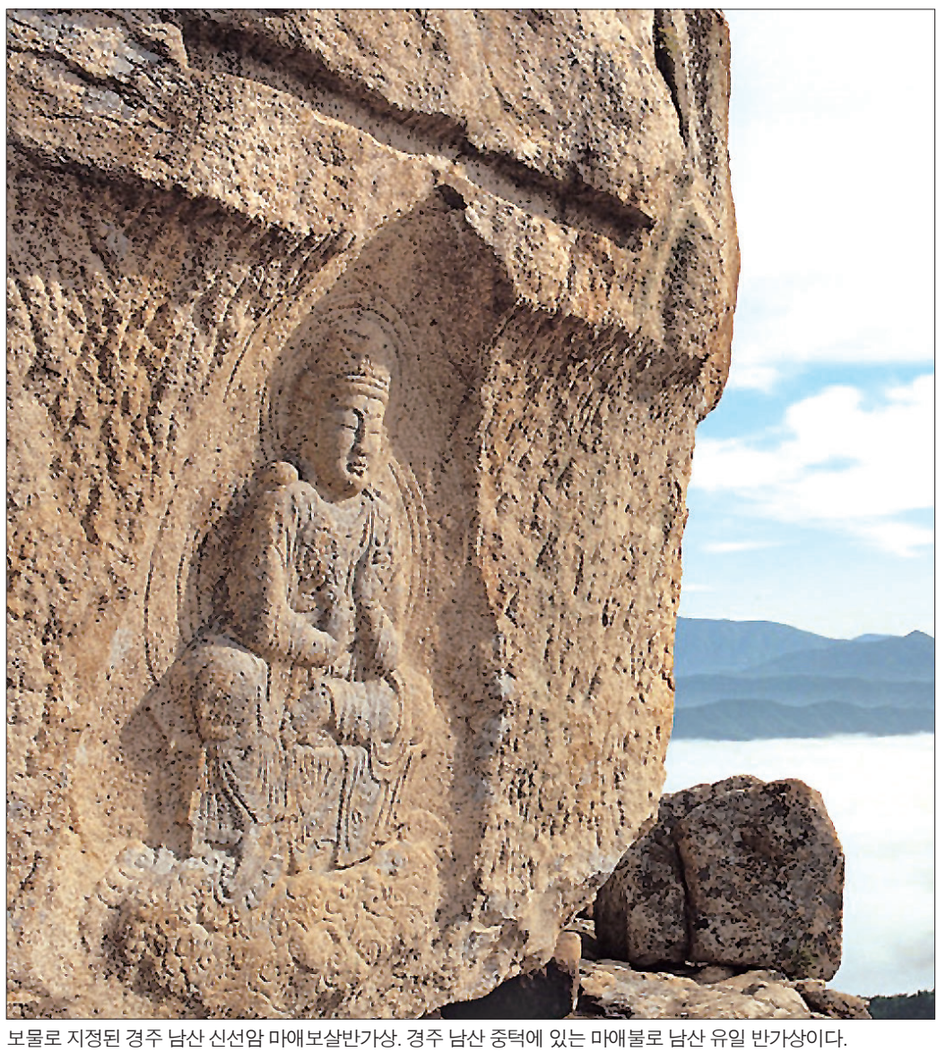
나는 신도들과 남산의 성지순례를 갈 때 언제나 불상 가까이에 다가서서 다 함께 기도를 올린다. 주위를 돌 수 있는 불상이나 석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반야심경〉과 '천수다라니'를 독송한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불상이나 석탑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뵙기 위한 순례를 온 것인데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닐까. 보존을 앞서 말한다면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불상과 불탑을 그 누구보다 더 경건하게 받든다는 것을.

나머지 아쉬움은 복원의 아쉬움이다. 막새는 기와집 기와 추녀의 끝을 장식하는 무늬가 있는 기와를 말한다. 칠불암 주변에서 수습된 길이 10.2cm의 당초무늬 암막새는 7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막새는 안압지에서 발견된 679년을 뜻하는 '의봉4년(儀鳳四年)'이라는 명문이 있는 당초무늬 암막새와 흡사하다. 그래서 마애불상의 연대를 679년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정도면 칠불암은 한국불교 초기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사찰이 된다. 그런데 칠불암 경내에 있는 아무렇게나 쌓여 있거나 석탑과 흩어져 있는 석등 하대석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마당에 있는 석탑은 기단석이 지붕돌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 위에 몸돌이 있는데 또 그 위에 네모난 기단석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기단석 위에는 몸돌과 지붕돌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뭔가 싶다. 북편 계곡에는 흙에 묻힌 탑재가 있는데 마당 석탑 기단으로 사용되는 지붕돌과 같은 탑재로 보인다. 그래서 마당의 석탑은 최소 2개의 석탑을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것이다. 이 석탑을 볼 때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주지스님께 묻고 싶다. '왜 복원을 안 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칠불암의 이름은 마애삼존불상과 앞 사방불을 합한 숫자 때문에 붙여진 것 같다. 언제부터 칠불암이라 이름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불암이나 오방암이 맞는 거 아닐까 싶다. 아미타불의 좌우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기 때문이다. 두 보살을 빼면 부처님은 다섯 분이다. 또한 아미타불을 중앙에 모시고 주위에 사방불이 있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조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미타삼존불상 앞에 사방불을 조각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오불암이나 오방암이 칠불암보다는 맞는 명칭 아닐까 싶다.

칠불암 오른쪽 길 따라오르면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만나
마애보살상, 칠불암 직선 위치
칠불암·신선암 불상 상호 연관



보물로 지정된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경주 남산 중턱에 있는 마애불로 남산 유일 반가상이다.

반으로 자른 듯한 바위의 한 면에 부조가 높은 마애삼존불상은 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본존불의 높이는 2.6m이며, 본존불을 향해 서 있는 두 협시보살의 높이는 2.1m이다. 본존불상은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한 뛰어난 솜씨를 뽐내고 있다. 앙련과 복련의 연화대좌에 앉아 계신 본존불상은 상투를 튼 육계의 모습이며, 네모난 얼굴은 근엄함을 부각시킨다. 어깨는 힘있게 딱 벌어져 있어 당당하며, 우단편견의 오른쪽 어깨를 내놓은 옷주름은 석굴암 본존불상을 생각나게 한다. 본존불과 협시불의 물방울을 생각나게 하는 두광은 부드럽고 소박하다. 본존불상의 우뚝 솟은 코는 시멘트로 보수했지만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다.

좌우의 협시보살은 복련의 대좌에 서 있는데, 어깨가 한쪽이 올라가게 강조하면서 본존불상을 향하고 있다. 본존불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의 보살은 오른손에 정병을 든 관세음보살이다. 정병에는 영원한 생명의 물인 감로수가 담겨 있다. 인도어로는 소마라고도 한다. 왼쪽 보살은 오른손에 연꽃을 든 대세지보살로 추정된다. 두 보살 모두 발을 좌우로 벌리고 있는데 귀엽다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든다.

칠불암 사방불은 높이는 2.23m 내외로 동서남북의 네 면에 불상을 새긴 독창성이 뛰어나다. 네 불상의 명칭은 확실하지 않다. 문명대는 8세기 초 당나라에서 번역된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羂索神變眞言經)〉에 따라 동방 약사불, 남방 보생불, 서방 아미타불, 북방 세간왕불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정면에 아미타삼존불상을 조성하고 또 서방의 아미타불을 조각한 이유가 의문이다. 다른 명칭의 불상이 아닐까 싶다. 약함을 든 동방의 약사불만이 분명할 뿐 다른 불상의 명칭은 알 수 없는 비밀의 사방불상이다. 네 불상 모두 오른손을 들고 엄지와 검지를 붙인 수인과 통견의와 옷 주름 등이 거의 같다. 사방불 또한 풍만하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보아 8세기 중엽 불교의 최전성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칠불암 본존불과 사방불의 참배를 마치고 나면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남산 최고의 관세음보살님을 참배하러 가야 한다. 칠불암 오르느라 힘들었던 분들도 충분히 쉬고 무조건 신선암 관세음보살님을 참배해야 한다. 남산에서 구름을 타고 날아올라 계신 지상 최고의 관세음보살상을 참배할 더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무섭지만 참아가며 바위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경치가 보이는 바위 능선에 오르게 된다. 이 큰 바위를 돌아서면 마애보살반가상이 정말 멋지게 나타난다.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은 바위 한 면의 중앙을 주형(舟形)으로 파고, 그만큼을 양각으로 보살상을 조성하였다. 어찌 보면 감실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광배 같기도 하다. 전체 높이가 1.9m의 크기로 새겨져 있다. 주변에는 건물을 바위벽에 붙여 세운 흔적이 있으며, 주위에 기와 편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살상 앞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앞은 절벽이라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감이 안 온다. 비를 막는 지붕 형식의 전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살상 바로 위에는 가로로 직사각의 홈이 파여 있다. 가로 154cm, 세로 10.5cm, 깊이 6cm인데 천개를 부착했던 흔적 같다. 관세음보살님 위로 천개가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저 멀리 풍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가 막혔을 것 같다.

보살의 머리에는 삼면보관(三面寶冠)을 쓰고 있다. 선명하게 보이는 눈과 코와 입술은 부드러우면서 살짝 미소를 짓고 있어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전반적으로 풍만한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얼굴이 좀 큰 편이고 옷 주름의 장식성이 풍부하다. 목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으며 옷의 주름은 화려하게 늘어져 있다. 양손은 가슴으로 가져다 대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 중앙에서 꽃가지를 들고 있다. 왼손은 오른손 위쪽에서 엄지와 검지를 맞대며 손바닥을 보이는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오른발은 대좌에서 내려놓았는데 이는 신라시대 불보살상으로는 유일한 모습이다. 또한 우리나라 마애불에서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 송이 연꽃이 오른 발바닥을 받치고 있고 왼발은 가부좌를 취하고 있다. 옷주름이 대좌를 덮고 있는데 용장사곡 삼륜좌불을 생각나게 한다. 또한 구름이 좌대를 받치고 있는데 하늘 높은 저 어딘가에 있을 불보살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 같다. 화려한 관음보살상을 돋보이게 하려고 신광과 두광을 둥근 선으로 단순하게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 시기는 8세기 중엽이라 판단된다.

마애보살반가상은 칠불암을 직선으로 바라다보고 있다.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은 연관된 불상으로 보인다. 마애삼존불상의 본존불은 아미타불상이다. 그렇기에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은 관세음보살님이 칠불암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받아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중생을 살피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경주 남산 불국토 안내의 글을 마친다. 소개하지 못한 석탑과 박물관에 모셔진 불상이 눈에 들어온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꿈을 꾸며 글을 마무리한다.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남산의 불상이 원래의 자리에 모셔지고, 경주 남산이 한국불교의 불국토 성지순례 일번지가 되는 날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끝〉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11호 | 15 | 전면광고

온갖 형상을 그릴 때에 좋고 추한 것이 화공을 따르듯이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의 인연은 모두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60평
- 건평 : 15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20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면적 : 60평실평
- 5층건물에 4층 • 전철역 출구앞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일산역 6분거리)
- 규모 : 40평 정도(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40만원
- 삼존불(동불) 탱화, 불구, 집기 일체, 호신불 230불 가량 등
- 모든 시설 포함 2000만원에 넘김 시설비 조절해 드립니다. 물품, 집기만 필요하시면 가능합니다.

010-2847-6289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7500만원

010-5316-5669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3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격 알아서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 5300평 자연녹지 (현재 인법당 있음)
- 평당 10만원(가격 절충)

010-6319-8606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사유지 포함 500평 사용
- 주차 10대, 건평 68평
  1층 요사 42평 방 4개, 화장실 3개
  2층 대웅전 26평, 식당 2개,
  실외 화장실 1개, 산신각 6평, 난방 심야전기,
-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 가능
- 시가 이하 6억 5000만원 급매 (절충가능)

010-6425-82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동래구 온천3동 광혜병원옆
- 포교원 3층 약50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스님방
- 전세 1000,월세 70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553-5001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종합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2, 각방 2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010-8599-9468
010-4746-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선산 부근
- 인근 산 1000평 사용
- 법당 삼성각 창고
- 보살 및 비구니 스님 환영
- 즉시 법회 가능
- 보시고 결정

054-482-66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사등면
- 대지 : 300평, 임야 : 2700평
- 건물 : 법당 산신 용왕 요사채 넓음
- 전망 최상, 약수물
- 가액 : 2억 7500만원

010-9127-5355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3억원

010-4585-68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3억 6000만원

010-3596-0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11호 | 16 | 전면광고

욕심과 번뇌를 여읜 이는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선禪갤러리 작품실

수강생 모집

탱화 불화 ⇨1년 과정 ₩400만원(주2회)
선화 [달마도 관음도 동자도] ⇨3개월 과정 ₩100만원(주2회)
＊요일과 시간(2시간) 선택 자유＊

한국전승문화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11 (4층)
선禪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0 (1층)
(02) 722-3459 (010) 4943-3459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비구니 · 보살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영적으로 고통받는
비구니 기도 스님 두 분 혹은
보살님 두 분 구함

010-8298-3802

포교원 안내 및 상담

- 위치 : 서울 강서구 시장옆 2층
- 30평, 보증금 없이 월 60만원
- 공양주 · 부전 · 처사 일할분 쓸분 상담
- 결혼할분 '서울 명동결혼'에서

직통 010-5381-1419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사람을 찾습니다

법명 : 공덕심 (보살)
나이 : 78세 (돼지띠)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010-3152-2732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010-6866-3588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㊸ 영화 〈브이 포 벤데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한 장면.

한겨울 한밤중, 전시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닌 아주 평범하게 하루를 마감하려던 보통의 하루,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일,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국회에 난입해 국민들이 법을 세우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출입을 막는 일, 비상계엄령 때문이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담화문 하나로 군대가 저렇게 움직여지는 거구나.

이런 일은 또 있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군대가 방송국에 밀고 들어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반공을 구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겠다'는 포고문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반란. 그렇게 권력을 잡고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장기집권하던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자기 심복들에게 총 맞고 죽은 후 벌어진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에 벌어진 〈서울의 봄〉(김성수 감독)에서 다룬 바로 그 군사반란이었다.

그렇게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은 1980년 10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작전명령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을 수립해서 조계종 종단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군·경병력 3만2천여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31곳을 일제 수색한 법난을 저질렀다.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꼽히는 '10·27법난'은 아직도 그 사태를 누가 입안하고 명령했는지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10·27법난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범죄인 만큼 대통령 사과, 책임자를 비롯해 사건 전모에 대한 정확한 규명, 피해보상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정권을 찬탈하려는 군인들이 벌인 쿠데타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군대에게 명령한 것이었다.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소총으로 무장하고 국회 본관 창문을 깨가며 강제 진입한 군대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들의 힘은 놀라웠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는 바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날이 밝기 전 계엄 소동이 철회되었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는 현실 속에서 새록새록 되새겨지는 영화다. '상호 복수, 피의 복수' 또는 '장기간에 걸친 불화, 항쟁'을 뜻하는 '벤데타(Vendetta)'라는 낯선 단어가 자꾸 익숙해지는 건 영어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억압과 통제가 너무 어처구니없기 때문이다.

제3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악의 세력으로 전세계를 짓밟는 동안, 미국을 비난하는 국가주의의 미명 아래 꽁꽁 묶인 2040년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금과 밀고, 언론 통제와 거짓 정보, 감시와 처벌이 독재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이런 세계에서 홀연히 나타난 'V'는 영화 내내 자신의 원래 이름도, 내력도 밝히지 않고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쓴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영화에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 악을 처벌하고 'V'라고 표식을 남기는 그를 '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오독이다. V는 사실 정신집중캠프의 실험용 수감자였던 그가 갇혀있던 방의 번호다. 그러니까 '5호실 무명씨'가 어떻게 피의 복수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항쟁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면서 혁명의 아이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승리의 주역 '브이'로 떨쳐 일어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를 제목 〈브이 포 벤데타〉에 담고 있는 영화다.

통금 시간, 어두운 밤길을 몰래 나선 방송국 직원 이비가 못된 남자들에게 잡혀 막 험한 일을 당하려한다. '밀고자'의 표식을 내보이며 능글맞게 이비를 압박해오는 사내들을 처단하고 V가 이비를 데려간 곳은 영국 국회의사당의 상징 빅벤 꼭대기. 거기서 V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을 배경으로 침묵에 쌓인 런던에 폭약과 불꽃을 터뜨린다.

가이 포크스 가면 쓴 V가 그리는 혁명 서사시
가면 뒤엔 한 사람 신념 있음을 위정자는 알라

이제 무기력과 체념에 눌린 채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강력한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를 더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던 전체주의 정권의 지도부는 V를 찾아내려고 안달이 난다. 그 와중에 V는 유유히 방송국에 들어와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에 서서 전 국민을 향해 1년 후 11월 5일,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겠노라고 선언한다.

마침 V와 함께 있던 이비를 잡으려고 핀치 형사가 방송국에 진압부대를 이끌고 와있던 상황이라 쫓는 자와 빠져나가려는 자가 엉켜 방송국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다. 혼란의 와중에 달아나던 이비가 얼떨결에 위기에 처한 V를 돕게 되면서 둘은 함께 지내게 된다. 자신과 이비를 지키려다보니 V가 이비를 억류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둘은 서로를 알아나가게 된다.

처음의 11월 5일에서 예정된 다음의 11월 5일까지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비와 V, V와 독재정권, 독재정권과 민중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많은 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이비와 사람들이 바뀌도록 만든다. V의 칼끝이 점점 더 권력의 핵심을 향해 겨누어질수록, 언론을 통한 조작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쓰고 나선다.

이 와중에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방송진행자 고든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대신 최고권력자를 패러디하는 쇼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다. 그는 V로부터의 억류에서 달아난 이비를 숨겨준 벗이며, 동성애자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고든의 죽음은 지금껏 숨죽여 살던 이비를 극단으로 몰아붙인다. 저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기만 하며 살 것인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인가.

마침내 11월 5일, 혁명의 그날. 거리는 혁명을 진압하려는 군인들로 에워싸이고, 폭약을 가득 실은 차량은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된다. 그 차량을 출발시킬 사람은 누구인가? V는 말한다. 그 일을 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 폭약은 자신의 선물이라고. 국회의사당을 지키려는 군인들을 향해 수많은 가이 포크스들이 다가온다. 이비와 V를 잡으려던 핀치 형사가 이비에게 묻는다. V는 누구였냐고. 이비는 대답한다. "그는 나의 아버지였고, 또 어머니였고, 나의 동생이었고, 당신이었고, 그리고 나였어요. 우리 모두였어요."

〈브이 포 벤데타〉는 여전히 지속되는 이야기다.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려 갖은 수를 쓰고, 제 목소리와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사라지는 걸 우리는 여태 보아왔다. 매카시가 미국 의회에서 쥐고 흔들던 '빨갱이 명단'이라는 종이는 실체가 없는 '거짓'이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때려잡는 무기가 되었다. 그러나 영화 속 V의 대사처럼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며, '너희들이 가진 건 총알과 내가 그 총알에 쓰러지기를 바라는 희망뿐'이지만, '널 쓰러뜨리는 건 내 칼이 아닌 네 과거'이고, 총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가면 뒤에는 그저 살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념이 있는 것'이다. 〈끝〉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㊼

1. 불교의 윤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틀린 것은?

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행복한 세계에 훌륭한 존재로 태어난다.
② 지금 생에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가르침이다.
③ 스스로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잘못된 행위를 금하는 가르침이다.
④ 모든 생명체는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 중유(中有)의 네 가지 양태를 반복한다고도 설명한다.
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제거한 존재도 현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져 지옥, 아귀, 축생의 갈래에 떨어진다고 경고하는 가르침이다.

해설 : 착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없는 출세간의 선업을 지어야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단순한 세간의 선업으로는 지옥, 아귀, 축생에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2. 불교 교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연기(緣起)는 모든 존재가 어떤 조건이나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진다는 원리를 말한다.
② 팔정도(八正道)는 실천덕목으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말한다.
③ 삼법인(三法印)은 대승의 보살이 실천해야할 덕목으로 계율인, 선정인, 해탈인을 말한다.
④ 중도(中道)는 욕망의 쾌락과 극심한 고행이라는 양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실천적 가르침이다.
⑤ 사성제(四聖諦)는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네 가지 진리로 고, 집, 멸, 도성제를 말한다.

해설 : 삼법인은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은 무상하며,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고, 그럼으로 고통이다라는 세 가지 바뀌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계율, 선정, 해탈은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의 무루오온 중 세 가지를 말하며, 대표적인 불교의례인 조석 예불의식 중 오분향례의 처음부분인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의 내용에 해당된다.

3. 3세업보(三世業報)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작은 잘못은 업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② 작은 선행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주어 꾸준히 선을 행하게 한다.
③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혹은 모순되게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사실은 인과업보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④ 선업과 악업에 대한 과보는 지금의 삶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후세(後世), 즉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다.
⑤ 지금의 역경을 받아 들여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일으키게 하는 미래지향적 인생관을 제시한다.

해설 : 지금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벌을 어느 미래에 반드시 받게 된다. 어떤 신이나 외부적인 존재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절대 그 업보는 사라지지 않으며 어느 미래에 인연의 순간이 도래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4. 불교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색온(色蘊: 육체, 물질)·수온(受蘊: 지각, 느낌) ·상온(想蘊: 표상, 생각)·행온(行蘊: 욕구, 의지)·식온(識蘊: 마음, 의식)의 다섯 가지 곧 5온(五蘊)을 말한다. 5음(五陰), 5중(五衆) 또는 5취(五聚)라고도 하는 이 교설에 의해 표현되는 인간관으로 올바른 것은?

① 정신에는 육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
② 정신은 육체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다.
③ 정신 작용은 육체에서 비롯되어 생겨난 것이다.
④ 육체와 정신은 함께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⑤ 육체는 정신작용의 바탕으로서 정신현상을 지배한다.

해설 : 오온은 색온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인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을 설명하는 것이다. 색법인 육체는 여섯 가지 인식기관이 여섯 가지 인식대상을 만나 그것에 의하여 정신이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말로, 육체적 작용이 없으면 정신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며, 정신작용이 없으면 육체적 작용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럼으로 육체와 정신은 어느 한 쪽에 의한 지배적 관계라기 보다는 함께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정답 : 1. ⑤ 2. ③ 3. ① 4.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불기 2569(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갑진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9(2025)년 을사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24 반야심경 ③



▶한줄 요약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구도자로 살아야 할지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을 내라고 하는 주문이 바로 〈반야심경〉 속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입니다. 가니, 가니, 건너가니, 건너가서 완전히 피안에 도달하니 그곳에 보리(모지)가 있구나. 사바하~.

가자 건너가자 완전한 피안으로

대중목욕탕 같은 공의 경지

대중목욕탕에 가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아무리 값비싼 옷을 걸치고, 또 제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해도 발가벗고 욕탕에 들어오면 그 누구라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는 바깥에서의 온갖 가치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와 같이 공(空)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토록 애착하거나 미워하는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니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인생을 또는 인간을 진지하게 살펴보니까 세속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이라 여기던 가치들이 "사람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나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아차렸단 것입니다. 사리자를 또 부릅니다. 그동안 인간 존재를 분석하며 공부해온 덕분에 공(空)의 경지에까지 도달했고, 그 공의 차원에서 그동안 공부해온 교리들은 전부 아무 것도 아닌 것, 없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런 까닭에 〈반야심경〉에서는 '~없고, 없고'라는 말이 그렇게나 많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선'도 없고 '악'도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악을 끊고 선을 추구하며 바르게 사색하고 수행하며 살아온 사람(수행자, 아라한)에게 이제는 그 선(善)과 바름(正)에 얽매지 말고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나만 해야 해?

아라한 중에 아라한인 사리자를 불러서 자신의 깨달음 경지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주는 관자재보살, 그가 살짝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며 수행해서 온갖 번뇌를 없애 열반의 경지에 안착했는데 또 나아가야 한다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어쩌면 사리자의 얼굴에서 이런 표정이라도 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독입니다.

보살도 바로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조금도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이란 차별심, 분별심이라 생각합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차별과 분별, 성자와 범부의 차별과 분별…. 이런 분별심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으면 그야말로 속 시원한 대자유의 행복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별심마저 마음속에서 시원하게 제거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착각도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터이니 바로 이것이 진짜 열반(구경열반)이라고 일러줍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정체를 완전히 파악해서 넘어서야 옳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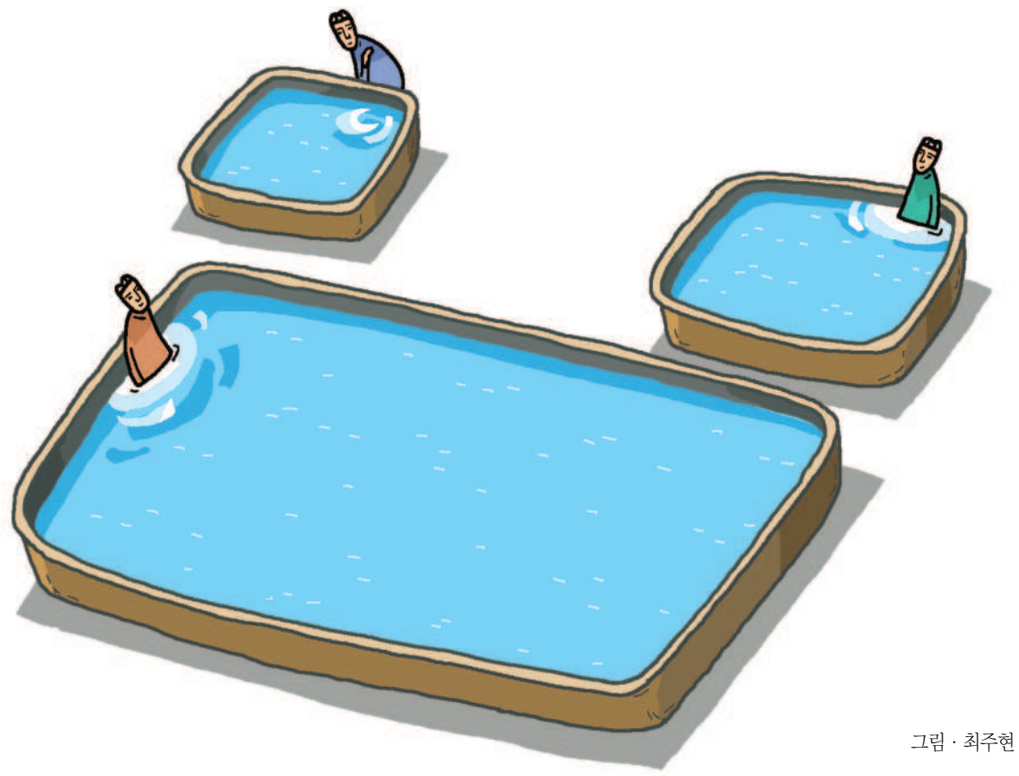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결국 우리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

〈반야심경〉을 왜 읽을까요? 법회 식순 앞자리에 〈반야심경〉 봉독이란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읽는(봉독) 이유는, 수행자(아라한)-보살-붓다의 과정을 밝히는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불자님들이 읽었던 〈반야심경〉은 부처의 경지인 아뇩다라삼약삼보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았지만 부처님 앞에서 불자님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맹세한 셈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어휴! 부처가 된다고요? 성불하라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난 그냥 불교신자로 살다 갈 거예요. 무슨 부처씩이나?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아요."

많은 불자들은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사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 막연하고 너무 멀고 너무 힘든 길의 끝에 있는 목표 같아서 대부분 이렇게 사양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불교라는 종교는 바로 이렇게 '부처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겸손한 듯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요. 너무나 뜬금없게 느껴질 정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부처 되겠노라 나서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어찌 감히 부처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사람에게 쓰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교만 중에서도 가장 교만한 것을 증상만(增上慢)이라고 합니다. 부처 될 생각은 아예 없고, 내가 부처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상만자(增上慢者)'라고 부릅니다.

'반야심경'을 지극한 마음 봉독 이유는
수행자-보살-붓다 과정을 밝히기 때문
언제까지 구도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제아제~' 외우는 이유 여기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글로 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묘법연화경〉 '방편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대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은근히 대중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붓다의 경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생들이 왜 번뇌가 있고, 왜 괴로움에 시달리고, 왜 악업을 저지르는지, 어떻게 하면 번뇌를 모두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고 '붓다의 경지'를 찬탄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소 뜨악했을 것입니다. 사실 붓다의 경지는 깨달아서 붓다가 되기 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할 텐데 왜 법회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법회에 모인 대중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대중들의 궁금증을 한 몸에 짊어진 사리자가 부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구, 그런 것 물어보지 말라. 내가 대답해 주어도 그대들이 알 수가 없다."

삼세번을 청하고 대답을 거절하는 부처님과 사리불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사리불의 청에 못 이겨 본격적으로 법문을 하려 하시는데, 이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모인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이들은 죄업이 무겁고 교만하여 얻지 못한 것을 얻은 척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척하는" 자들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기를 거부하고 물러났는데 부처님은 그들을 붙잡지도 않고 오히려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지요.

"(저들이 떠나고 나서 남은) 여기 이 대중은 가지나 잎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열매만 남아 있다. 사리불아, 그와 같은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아제아제의 뜻

수많은 불자님들이 오늘도 아주 정성스레 〈법화경〉을 사경하고 봉독합니다. 틀림없이 두 번째 품인 '방편품'도 수없이 읽고 쓰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품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는가라며 붓다의 경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은 정작 얻어야 할 것은 얻지도 못했으면서도 다 얻은 척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법화경〉을 사경하면 집안에 평화와 행복이 온다는 믿음을 지니신 분들은 사실 〈법화경〉의 메시지는 이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전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전 속 메시지처럼 나도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묘법연화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승경전들은 거의 다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낸(발심한) 보살들에게 들려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저 유명한 〈화엄경〉, 정확하게는 〈대방광불화엄경〉은 이런 보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과 수행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들려주는 경입니다. 〈화엄경〉을 읽으면서 범부중생인 내 마음속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찾아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은 대승경전이 아닙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내 수행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행한 구도자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세상 모든 이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불을 목적으로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경이기 때문이지요.

니까야, 아함경과 같은 초기경전은 내 번뇌를 없애고 싶은 간절한 범부중생의 마음으로 읽어가시고,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세상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구도자로 살아야 할지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기만 합니다. 그럴 때 힘을 내라고 하는 주문이 바로 〈반야심경〉 속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입니다. 가니, 가니, 건너가니, 건너가서 완전히 피안에 도달하니 그곳에 보리(모지)가 있구나. 사바하~.

끝은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아제아제~"해야 합니다. 당신이 불자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쓰인 것이 경전입니다.〈끝〉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대행 스님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자 중생이요 중생이자 부처님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서부터 있는 것이지 큰 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조그마한 마음속에서부터 큰 우주를 덮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는 것이지….

질문자1(남) 스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이, 그리 좋은 게 어째서 있을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게 있습니까?

큰스님 지금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일이 어디서 그렇게 생길까요?

"어디서 생길까요?" 하는 그 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모두가 수십억 마리가 한데 합쳐져서 인연이 돼서 몸뚱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놓으려 해도 내놓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의 진리라고 합니다. 끝 간 데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그 맛을 못 본다면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질문자1(남) 근데 왜 맛이 그렇게 안 봐집니까? (대중 웃음)

큰스님 그래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써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방에 들어가서 육신이 견딜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하다 하다 나중에는 병들어서 약탕관이 떠날 사이가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스님이란 큰스님을 다 찾아다니면서 화두를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안되고 그래서 선방으로 들어갔는데,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인제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와서 스님한테 듣고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해봤다는 얘깁니다.

그저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먹는 거든지 일체가 다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 감사하구나.' 하고 놓고서 그냥 견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하, 이렇구나!' 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그냥 확 트여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좋아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어깨가 쭉 펴졌답니다. 병들었던 그분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자 바로 중생이고 중생이자 부처님이에요. 한 생각에 껍데기가 벗겨지느냐 덮어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는 고가 고가 아니라 전부 나를 가르치는 수행 과정이라고요. 참나가 현재의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고맙기 그지없는 겁니다. 아니, 작년 콩



그림 · 최주현

씨를 갖다 올봄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됐는데, 화해서 콩나무가 됐으면 콩씨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에 콩이 붙었는데도 작년 콩씨 찾느라고 바깥에서 휘적휘적한단 말입니다. 그 콩씨가 바깥 어디에 있겠습니까?

질문자1(남) 과거에 비해 어리석어진 걸까요, 사람이?

큰스님 우리가 바깥으로만, 물질 본위로만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고 이러는 게 전부 물질 중심이고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내 탓 네 탓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나는 사실 조금도 거짓 안 합니다. 내 양심이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양심에서, 즉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간 법계에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천이통, 무전천체통 신기로 전체를 듣고, 또 천안통, 천체망원경으로 영사기가 돌아가듯 여러분이 움죽거리고 있는 모두를 보고, 또 타심통, 탐지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또 숙명통, 컴퓨터가 여러분이 지내 온 걸 다 알고, 또 누진통, 책정기가 이 다섯 가지를 다 알아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책정기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현실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겁니다.

빛보다도 더 빠른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채로 여러분의 집에 한번 좀 갔다 와 보세요. 일 초도 안 걸립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 보세요, 지구가 얼마만하게 보이나. 한번 나가 보세요, 어떤가. 밖으로 나가시는 데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갔다 오시는 데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했더랍니다. 아니, 죽었다고 하지 말고 꿈이라고 합시다. 꿈을 꾸는데 말입니다, 육체는 재워 놓고 꿈을 꾸는데 뺑 돌아서 큰불이 났더랍니다. 그래 길을 걷다가 불에 포위가 됐더랍니다. 포위가 됐으니 어떻게 나갑니까? 빠져나가려면 꼭 불에 타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불에서 못 나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불 가운데서 쓱 나오시더니 "야! 내 지팡이를 잡아라. 네가 지팡이가 없다면 내 지팡이를 주지 못할 것이고, 네 지팡이가 있다면 내 지팡이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니까 "오! 그 살려 달라는 지팡이가 있구나."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려 달라는 지팡이를 주지." 그러고선 지팡이를 턱 내미는데 그 지팡이에 자기가 턱 서니까 불이 전부 없어지더랍니다.

또 한 군데를 가니까 물이 아주 천야만야하더랍니다. 거길 건너가야 자기 집에 갈 수 있는데 물에 뺑 둘려 또 포위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배를 찾으니 배가 있나요? 그래서 그 강을 못 건너가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데 또 그분이 나타나셨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야! 참 이상도 하다. 나를 스님이 되라고 이러시나? 꿈에 스님이 나서서 이렇게 살려 주시니 이 고마운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음, 네 정성이 지극하니 내 지팡이를 주마." 하고선 지팡이를 탁 내놓는 그 바람에 물이 그냥 싹 없어지더랍니다. 그래, 길이 났으니까 그냥 갔죠?

그랬는데 또, 산에 온통 구렁이니 뭐, 짐승들이 잔뜩 있어서 응응거리고 발 하나 떼 놓을 자리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거기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뭐, 여자 귀신 남자 귀신 애 귀신 늙은이 귀신 할 것 없이 귀신들이 그냥 몰려서 전부 자기를 좀 살려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할 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엎드려서 빌었답니다. "스님, 스님! 좀 살려 주십시오. 아까도 살려 주셨는데 지금 또 한 번 못 살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빌면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가 쓰여 있는 백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서 그냥 마음으로 마구 울었답니다, 꿈에.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석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냥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뼈다귀만 남아 가지고 어떻게 나 그 스님을 찾고 울었는지 모르는데 스님께서 요만한 부채 하나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부채를 탁 내던지니까 그 영계들이 다 없어지더랍니다. 또 그 짐승들은 양산을 하나 훅 펴니까 그 속에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도 그 자리가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양산을 턱 펴니까 양산에 전부 짐승들이 들어가 앉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요만한 알갱이가 돼서 다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고만 거기에서 그걸 보고선 탁 깼더랍니다. 깨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을 때 물질 본위로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체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탈 것도 없고 빠질 것도 없고, 당할 것도 없고 잡아먹힐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 의식 때문에, 물질 본위로 살던 그 습이 있기 때문에 탈까 봐 못 들어가고 빠질까 봐 못 들어가고 먹힐까 봐 못 가고 영계에 끄달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놔라 이겁니다.

질문자1(남) 그게 그냥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놔지는 겁니까?

큰스님 그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라고 안 그러고 자기가 살 양으로 안 그런다면, 죽는다 산다를 떠난다면, 내가 없는데, 나를 버렸는데 거기에 나 이외에 뭐 붙을 게 있습니까? 나는요, 죽어야 나를 본다고 그래서 내 한 몸뚱이 죽는다 산다 이런 걸 그냥 버렸더니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믐밤에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두렵지가 않고요. 그 뭐가 두렵습니까? 죽은 영계들이 있다 하더라도 외려 친근하고 외려 친절한 거 있죠? 둘이 아닌데요, 얼마나 좋아요?

충북에 있는 광명사에 갔는데요, 여기 같이 이런 고상한 탱화가 아니고 울긋불긋한 그림 열두 가지를 쭈욱 걸어 놓고, 또 한 아홉 갠가 해서 쭉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름 대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전부 부숴 버렸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졌던 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 본위로만 돌아가는 이 습을 놓는다면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할 시에는 마음들이, 그 믿고 모시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흡수 못 하게 된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장도 될 수 있고 칠성도 되고 독성도 되고 지신도 되고 목신도 되고…, 여러분이 찰나찰나 바뀌지는 겁니다. (등 뒤의 탱화를 가리키시며) 그래 손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그러면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데 고정된 관념이 있고 고정되게 행하는 게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만남이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듣는 것이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으십니까? 전부 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자 '공'이다.

그러니 이름 그대로 내가 공했으니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맡겨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런지 남들은 믿으면서도 자기는 못 믿어요.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인 참자기를 못 믿어요.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진짜 믿어야지 왜 못 믿습니까? 현재 자기는 자기 나기 이전의 자기 조상을 믿어야지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자기 조상은 죽지도 않아요. 또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데 왜 못 믿습니까, 글쎄. 그 못 믿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일체 만법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그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놔야 되겠구나. 이건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구나. 아이구, 감사해라.' 하고선 자기 자신을, 주인공을 그렇게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밖에는 해결 못 해!' 하고 믿고 놓게 됩니다.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너밖에는 해결 못 해!' 하는 겁니다.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이렇게 부르고 다니면서 "주인공!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 달라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미거하다거나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물의 짐승도 나 아님이 없거늘 내 배 속에 그 미생물을 그냥 끼고 있으면서도, 똥집을 내 배 속에 끼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가래침이나 핏물 고름물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찮은 사람을 보면 하찮다 그러거든요. "에이, 건방져!" 이러거든요. 그리고 비구가 비구니 알기를 우습게 알거나 또 비구니가 비구를 볼 때 우습게 봐서도 아니 되고요. 어머니는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니 어머니요, 아버지는 공기와 태양빛을 모두 줘서 기르니 아버지요,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삼위일체로 다 회전이 되면서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몸에 사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삼합이 맞아야 하니까 그걸 삼신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간으로 살다가도 나쁘게 살았으면 자기 한 것대로 딴 데 가서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한 것대로예요. 가게에 물건 사러 갔을 때에 이천 원짜리를 천 원만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해 보세요, 주나? 안 줍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 일한 대가를 주지 그냥 가서 달라면 안 줍니다. 그러니 어찌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 법! 그러니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누구더러 깨닫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누구더러 그 맛을 보여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더러 내 배를 부르게 해 달라고, 춥고 배고픈 거를 다 면하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내 몸뚱이 생긴 게 바로 화두예요. 이게 화두고 내가 움죽거리는 게 그냥 행선이고 그냥 참선이죠. 와선이니 좌선이니 입선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이름이 참선은 아니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자체, 앉고 서고 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내서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도 그것을 좌선이란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가 참선을 하는 거고, 일어서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허공을 바라보는 것도 참선입니다. 물을 내려다보는 것도 참선이에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있어야죠.

여러분은 일을 해 가면서도 한생각을 잘하면서 하시구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은 급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저 10분이든 5분이든 나를 성숙시킬 수 있게끔 참나에 관하고 나가세요. 또 집안일 하는 분들은 자녀와 남편을 내보내는 데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해 주고, 말 한마디라도 잘해 주어야 능률이 나거든요. 일하는 게 능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주문을 외운다, 절을 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하지 말고 한생각을 그냥, 절 한 번을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써 삼만 번을 그냥 한 번에 해 버린다든지, 오만 번을 한 번에 해 버린다든지, 아예 그냥…. 어차피 욕심을 부리려면 그냥 몽땅 다 해 버리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두고두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느냔 말입니까? 난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진 몰라도 그냥 죄 신청부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청부같으면서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습니다." 이럴 땐 기특하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는 저 소중한 마음!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아리따운 마음, 그게 관세음의 마음이지 따로 있소?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그걸 용서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지 어디 따로 있소? 내 자식한테만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그런 마음만 가져라 이겁니다.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으니까요.

한번 사생의, 사륜의 굴레 바퀴가 돌아가는 걸 몽땅 본다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모두가, 벌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 하고 있습니다. 내 배 속에서 지금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없다면, 사생이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없다면 바깥 세상을 보세요. 바깥에 한 몸 한 몸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또 사생이 외부에 있으면서도 그 한 몸 안에 또 있으니 말입니다. 그 한 몸 안에 또 사생만 있나요? 그 사생 속에 또 사생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한생각에 천 명도 나고 만 명도 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영계라는 거는, 물질적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물질이 아닌 바로 영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 나라도 다스리고 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장을 놓았는데, 창문을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되면 장을 이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고 그래요.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 이 지구도 바로 내 몸뚱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체계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살림살이나 하찮거나 좋은 말, 이런 것이 전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그 뜻을, 법의 그 뒷면을 보세요. 학식만 배우지 말고 마음이 쓰여 있는, 글자가 쓰여 있는 그 백지도 보셔야죠. 그 백지가 아니었더라면 글씨가 어디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점안식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12월 13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놓았는데
창문을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되면
장을 이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래요.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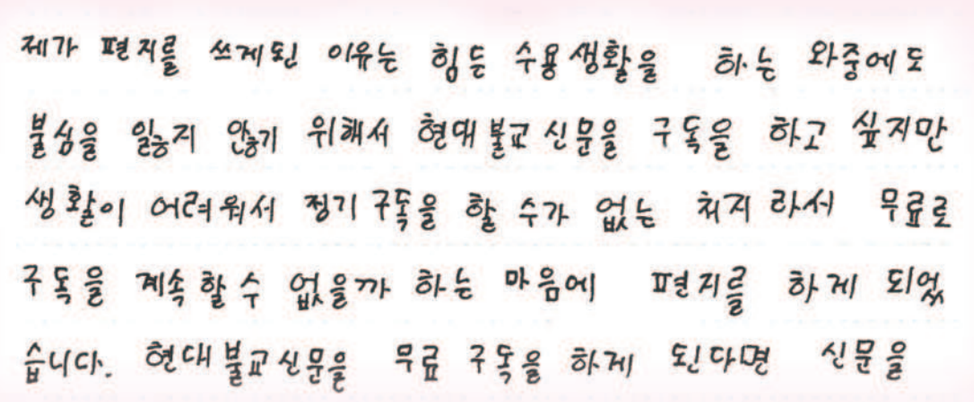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마음 속 분노, ‘STOP 기술’로 다스려라

㉙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 분노 시리즈 (2)

2018년 〈타임〉지 특별호에는 ‘위대한 과학자: 우리 세상을 바꾼 천재와 선구자’로 한 명의 여성 심리학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수많은 수상으로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은 유명한 심리학자는 마샤 리네한(Marsha M. Linehan),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Dialectical Behavior Therapy)의 창시자이다.

그녀가 창시한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경계성 성격장애, 자살충동, 섭식장애, 약물의존, 우울증, 외상장애 등 고통을 겪는 심리장애에 도움을 안겨줬고,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심리치료법을 제시했다.

수많은 공로와 업적보다 ‘치료 DBT’가 마음을 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 자신이 경계성 성격장애이었기 때문이다. 10대 소녀였던 당시부터 통제가 불가능한 자신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 발버둥 친 결과였고, 자신의 삶을 토대로 일궈낸 치료법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좌절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가 됐다.

정신과 병동 입원 후 고용량의 약물치료, 전기충격요법을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던 그녀의 장애는 최악의 난치성으로 분류되어 내쫓기듯 퇴원해야 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내몰려 자살과 자해를 반복하고 망친 인간관계로 소외를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외로움은 좌절을 반복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목적과 방향 없이 세상에 쏟아내던 분노를 갈무리하고 위대한 치료사로 거듭났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친절한 말을 건네는 그녀의 치유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조심스럽지만 바로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끈기라고 생각한다. 그녀 자신의 삶을 일궈낸 원동력이자 스스로 장점으로 꼽는 성품 중에 하나였다. 끈기와 인내는 DBT치료에서 첫 시작인 ‘고통을 감내를 도와주는 기술’로 첫 관문에 제시된다.

그녀는 책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에서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탄생’을 소개하며, “내담자들에게는 마주한 순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수용할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유는 견뎌내는 힘을 갖춰야 삶을 위협하는 자살, 자해, 여러 파국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감내하는 기술을 12가지 넘게 개발하고 내담자에게 적용한 그녀는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STOP 기술’을 소개했다.

△Stop : 당장 행동하고픈 충동을 멈춘다. △Take a step back :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과 거리를 둔다. △Observe : 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관찰한다. △Proceed : 목표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가 뭔지 평가해 그 선택을 따름으로써 현재를 자각하며 행동한다.

분노 견디고 인내하는 다양한 방법 찾아
자신만의 ‘STOP 기술’ 갖추고 훈련 필요

지난 글에서 분노에 대해 설명하며, 분노는 인류에 장착되어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마치 덤프트럭과도 같은 힘과 위협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적절한 관리와 훈련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분노에 대한 대처 기술로 리네한은 ‘STOP 기술’을 일러준다. 분노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일단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 흥분을 가라앉혀야 하며, 스스로 멈추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화가 났을 때 스스로 멈추는 방법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폭발적 분노를 느끼면 가장 많이 하는 대처 방법이 ‘잠시 나갔다 오기’이다. 공격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말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자신의 변화에 알아차리다가 조용한 장소로 자리를 옮겨 호흡을 고르거나 독서, 낚시, 운동 등을 통해 분노 감정을 흘려보내면 좋다. 단, 술과 약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니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불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이다. 화나는 상황에 자신의 신체를 알아차리고 호흡하며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호흡명상은 평소에 많은 연습을 해두면 분노로 인한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분노 감정은 위험 상황이라 즉각 반응하기에 각성반응인 신체감각이 나타난다. 즉, 분노 유발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행동 태세를 갖추고 ‘투쟁-도피 반응’으로 방어 체계를 작동시킨다. 분노 감정과 연결되어 신체 반응을 안정화 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호흡명상이라 단언한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인지적인 방법도 효과적이다. 화가 나면 특정한 생각이 마음에 있다. ‘이런 일은 부당해’ ‘옳지 않은 일은 반드시 바꿔야해’ ‘불공평해’ 등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들이다.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상대가 의도한 바가 정말 있는가?’ ‘해석을 통해 문제를 키우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등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안내한 ‘멈추기 방법’들이다.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평소 연습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지난 글에서 부처님을 화살로 겨눈 사냥꾼 꾹꾸따밋따를 소개한 바 있다. 부처님은 꾹꾸따밋따가 힘들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갈비뼈가 통째로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도 화살을 들고서 그대로 멈춰 서도록 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견뎌내고 버텨내야 한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균형 잡힌 경추, 바른 자세 척도

㉓ 경추와 머리: 움직이지 않는 추–머리

모든 운동을 할 때,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바른 자세의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머리를 흔들거나 떠는 것은 채신머리없어 보이거나, 건강이 나쁜 것을 나타낸다. 이런 불안정한 머리 자세는 목의 근육에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감과 동시에 온몸의 불균형으로 진전될 수 있다. 바른 자세의 기본은 머리가 지상으로부터 수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면을 보는 자세다. 걷거나 뛸 때도 마찬가지다.

경추의 구조와 역할

사람 몸의 축은 머리, 등뼈 그리고 골반으로 이어지며, 이때 움직임은 목뼈 윗부분과 등-허리뼈로 구분된다. 주 기둥은 엉덩관절과 (팔을 제외한) 목의 기저 사이에 있는 체간이라 하고, 머리와 목(경추)은 체간 위에 있다.

그리고 경추 위에는 머리가 있다. 목과 뇌는 근육으로 이어져 있고, 목뼈를 통하여 뇌와 연결되는 신경, 혈관이 지난다. 머리의 무게를 견디면서 신체 변화의 빠른 움직임에도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경추의 역할이다.

정상 보행을 할 때 목은 머리가 시선을 따라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신체의 중력중심이 하지의 움직임 때문에 머리와 체간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제외한다면 분절, 즉 끊어졌다 이어지는 움직임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머리는 중력선과 수직을 이루는 것이 바른 자세의 기본이다. 무려 4.5~5kg이나 되는 머리가 앞으로 1인치 늘어날 때마다 목이 추가로 4.5kg의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

이처럼 무거운 머리를 충격 없이 유지하는 구조적 특징 중의 하나는 경추가 곡선으로 되어 있다. 경추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옆에서 보면 약간 휜 듯이 C자 형태의 커브로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경추 곡선은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걸을 때나 달릴 때 외부의 충격이 전해지면 뇌와 머리뼈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효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목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경추의 곡선을 유지해야 한다.



머리가 경추 위서 균형 유지해야
바른 자세로 건강한 걷기 가능

경추가 약할 때 문제점

경추 통증의 대부분은 머리가 수직과 수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 즉 목이 기우니까 머리가 기울어지고, 그로 인해 목의 근육과 신경이 아프게 된다. 더 진전이 되면 목부분의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디스크가 삐져나온다.

머리는 척추 위의 볼링공과 같다. 머리가 척추 바로 위에 있고 어깨 위로 똑바로 있다면 머리 본래의 무게는 목과 근육에 머리 무게만큼의 중량으로 목을 누르면서 쉽게 균형이 잡힌다. 하지만 머리가 기울어진다면 경추를 비롯한 온몸의 신경계는 큰 영향을 받는다.

기울어진 목의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결국 목 디스크로 진전된다. 이런 증상은 현대인에게는 흔한 병이 되었다. 목 디스크의 증상은 목, 팔 또는 손의 통증에서 동일한 부위로 방사되는 전기와 같은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때때로 팔이나 손의 마비 또는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머리 흔들지 않고 바르게 걷기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상의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똑바른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 서 있을 때 목과 머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가 척추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를 알아야 한다.

영국의 노르딕 전문가 그룹인 브리스톨 노르딕워킹(Bristol Nordic Walking) 그룹에 따르면 바르게 걷기를 평가할 때 많은 부분을 관찰할 수있다고 한다. 다리가 11자로 잘 유지되는지, 보폭은 적당한지 또는 팔의 흔듦은 좌우대칭적인지,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이 들려질 때에는 엄지발가락으로 무게중심이 잘 빠져나오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런 평가 항목들은 무수히 많아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면 매우 복잡하다. 걸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머리다. 걸을 때 실천해야 할 모든 바른 자세는 결국 머리의 흔들림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1. 척추를 머리 쪽으로 바로 늘린다. 목을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척추의 일부로 생각하고 척추 사이의 공간을 늘리고 아코디언의 풀무처럼 확장하려고 한다.

2. 누군가가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 실을 연결하고 마치 실의 꼭두각시처럼 그것을 통해 당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어깨를 들지는 않는 게 중요하다.

3. 지면과 턱 높이를 수평으로 한다.

4. 머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눈으로 땅을 살펴본다. 걸으면서 전방 10~15m 앞을 바라보지만, 고개를 밑으로 숙이지 말고 시야 전체로 본다.〈끝〉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템플스테이를 통한 전법·포교 내겐 '바라밀 수행' 같습니다

템플스테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인연되어 찾아오고 머물렀다 떠나갑니다. 호기심만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에는 상당수 인연들이 변화의 시기에 '재충전'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비우고 싶어서, '마음'이란 것이 궁금해서,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저 또한 대학생 시절, 템플스테이에 갔다가 인연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템플스테이에 찾아가보았었기에, 지금 국제선센터에 찾아오는 인연들 또한 1박2일 또는 당일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마음을 쉬고 에너지를 채워가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삶을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갈 실마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롯한 수행과 공부, 기도에 전념하는 사찰에서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도심 속에서 함께 하는 일은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출가자는 수행할 권리와, 아는 만큼의 법을 전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법을 나누는 스님들의 활동을 '회향'이라고 말하지만, '회향'은 단순히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외부활동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는 보살의 '바라밀 수행'이 있습니다. 바라밀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연 있는 이들도 함께 깨닫기를 바라는 서원을 세우고 인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스스로를 닦아나가는 수행입니다. 바라밀의 특성은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근본으로 삼기에 산란심으로 타인을 돕는 일은 세속의 행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저는 현재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라는 도심 속 현장에 처해봄으로써 제 수행의 힘을 점검하고 수행의 목적인 서원을 보다 굳건히 세워가며 외부로 향하는 마음과 차별상의 근저를 바로보고자 소임과 수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찰과 불교에 대해 관심 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스님들의 일상을 궁금해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는 마주하는 인연에 충실하며 내면으로는 한 순간이라도 알아차림과 서원을 놓치지 않고자 노력하는 일, 혼자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는 경전의 암송과 쓰기, 염불과 주력, 참선, 발원문 쓰기를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차별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그 자리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비심(悲心)과 자심(慈心)으로 채워가는 일, 이와 같이 바라밀행을 지어가는 것이 현재 저의 일상이자 수행입니다.

템플스테이 활동을 하기 전, 뜻이 같은 스님들과 함께 '움직이는사찰(mv.temple)'이라는 포교단체를 만들어 함께 수행하며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각자가 처소의 소임을 다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하되 현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나누고 실천하는 일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부모·친구·소중한 인연들이었을 모든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역량을 발휘하는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진과 스님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⑪ 생명에 대한 단상

다르마의 핵심은 '생명'

늘 연말이 되면 한해를 마감한다는 정서가 애처로웠으나, 이번 겨울은 특별하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아주 유난스럽다. 이 별스런 정서는 석존에 대한 마음조차 흔든다. 석존 그분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르마의 핵심은 생명이다. 진즉에 나는 생명이란 삶의 명령, 즉 살아감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단지 이 한 송이 꽃이 어디에 피어날 것인지 알 수 있을까?

그 꽃이 떨어지는 곳을 알 수 있다면, 뿌리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잎을 따거나 가지를 찾으려 하지 말라.

(只如此一株花 向什麼處着 若知落處便能直截根源 其或未然 切忌摘葉尋枝, H76, 213a2-4)

새로운 그러나 새로울 것도 없는 붓다의 면목은 이러하다. 감은 듯 뜬 듯한 눈길을 하고 얼굴에는 금빛의 평안한 미소가 감돈다. 결가부좌로 견고하게 앉아 있다. 절집 법당에서 마주치는 불상의 특징이다. 붓다의 저 오래된 침묵은 묵언으로 알려진다. 침묵의 언어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서두름이 없다.

떠나는 자의 발길에 아쉬움도 없다. 또한 다가서는 그 누구도 막아서지 아니한다. 양다리를 꽈배기 틀어 미세한 움직임조차 막는 결가부좌의 앉음새는 우주가 무너진다 해도 요동이 없다.

묵언과 결가부좌, 그리고 비밀스런 미소는 천사의 날개조차 굳어버리게 할 듯한 기세다.

그러므로 절집에서는 흐르던 강물조차 멈추기에 번뇌가 쉬는 법이다. 하늘의 구름조차 마음 내려 놓고 쉬는 것이다. 밤 하늘의 별들조차 깨어나지 않으려 박제된다.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구나 꿈꾸는 듯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잠도 아니고 꿈도 아니다.

절집선 강물도 멈추기에 번뇌도 쉰다
생명이 '본체'라면 테크놀로지는 '삶'
잎 따거나 가지 찾지 말아야 할 이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랑은 결코 꽃피지 않을 것이다. 오직 대상도 없이 인식 자체만 홀로 깨어있다. 적막과 고독의 불꽃이다. 그래서 숱한 사연들이 드나들어도 붓다의 가느다란 실눈은 단 한 번도 떠지지 않았다. 붓다의 뒤편으로는 후불탱화의 기묘한 평면성의 공간만 나부끼고 있다.

그러니 그대 지금 등 뒤쪽이 가려워도 돌아보지 말라. 이때까지 끌고 온 삶의 무게가 흐트러지면 중생인 그대의 정체성이 사그라진다. 그저 그대의 등 뒤로 무한한 하늘이 펼쳐져 있음을 믿으라. 이것이 시방 그대와 나 사이의 사랑법이라고 붓다는 말없는 말을 건네고 있다. 누군가 천연덕스럽게 〈사랑법〉을 노래하고 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중략〉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생명이 본체라면 테크놀로지는 삶과 살아감이라는 본체에 대한 기교들이라는 점에서 체와 용의 관계로 풀어진다. 감히 잎을 따거나 가지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불교는 항상 민중과 함께 했다

시계를 되돌려보자.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신군부의 압박에도 6월 3일 광주 방문을 강행했다. 이는 종교계 중앙 교단 책임자로서 첫 광주 방문이었다.

5개월 후 한국불교 사상 최악의 법난인 '10·27법난'이 발발했고 월주 스님은 고초를 겪은 뒤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월주 스님은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에서 '권력이 내민 손을 잡았다면 법난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수차례 자문했지만 자신의 답은 '아니다'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행을 후회하지 않음을 이 같이 밝혔다. "1980년 외로운 광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불교, 나아가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시민과 국회의원들은 극렬히 저항했고, 결국 국회 의결로 155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불교시민단체와 동국대 재학생들은 일제히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비판했다. 주요 종단에서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성명을 발표했다. 불심(佛心)도 민심(民心)도 심지어 보수 언론마저 대통령을 경책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허무맹랑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초발심자경문〉에서는 '삿된 말을 즐겨 들으면 성현이 바르게 말한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邪言魔語肯受聽 聖教賢章故不聞)'고 했다. 충암고, 육사 등 온갖 인맥의 장벽으로 갇힌 대통령에게 현재 민중의 경책은 들리지 않는다. 민심을 바로 보지 않는 자, 민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2024년 겨울, 다시 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질곡의 한국 현대사에 불교는 항상 '중생 곁'을 지켰다. 서슬 퍼런 독재 시대에도, 세월호 참사에도, 박근혜 퇴진 시위 때에도. 지금의 불교계도 누구의 '곁'을 지켜야 할지는 명백하다. 불교는 항상 '중생 곁'에 있었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병원비에 가족 생계까지,
무너진 가장의 눈물

네팔 이주민 노동자 구룽 옴 바하두르씨
아킬레스건 파열…수술비만 1000여 만원
재활도 포기…공장 폐업에 기숙사 문닫아
네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중국불교 우호관계 중요하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며칠 전, 인터넷에 이런 뉴스 제목이 올라왔다 '스님들은 좋으시겠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솔깃해서 클릭하니 재미난 내용이었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올해 1~9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1.5배 증가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1위라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좀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어떤 여행'에 주목하는지를 조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중국 관광객 트랜드를 조사했더니, 한국 여행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불교문화 체험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 '평창 월정사에 다녀오다', 혹은 '사찰이 편안하다' 등 언급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가 '사찰'이었다.

이 기사를 보고, 필자는 충분히 공감했다. 동아시아 불교국가 가운데 중국인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불교에 대한 마인드가 깊다. 현재 중국에서 승인하는 종교는 불교·도교·이슬람교·개신교·천주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는 도교가 아니라 불교이며,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도교는 중국의 자생종교요, 중국인들의 민속신앙 속에 자리 잡은 종교이다.

하지만 도교는 중국인들에게 불교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며, 한 지역에서 도교사찰이 불교사찰에 비해 매우 열세하다. 중국 역사학자이며, 세계적인 문화평론가인 위치우이(余秋雨, 1946~)

訪韓 중국인 '사찰' 검색 최다
中, 타종교보다 불교에 우호적
중국불교와 상생 도모 필요해

는 불교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치 모세혈관이 피부 끝까지 뻗어 있는 것처럼 불교의 자취가 곳곳에 자리하여 그 어떤 문화보다 훨씬 더 크게 활약하고, 훨씬 더 유효했다."

그러면서 위치우위는 어린 시절, 마을에 도교의 도사는 병을 쫓거나 장례식 등에 참여하는 정도였는데, 승려는 중생에 도움을 주거나 '수행자'라는 이미지로 기억된다고 하였다.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래(A.D 67년) 유교와 도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도교에서는 불교의례를 모방하거나 불경에 비춰 도교 경전을 만들었다.

운남성 대리(大理)에 숭성사(崇聖寺)가 있는데, 이곳의 3탑(三塔) 높이는 세계 최고다. 중심탑 높이가 69.13m인데, 일반 아파트로 치면 20층 정도이다. 숭성사와 3탑 불사비가 2003년에 한국돈으로 환산해 236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독자들이 '중국불교가 뭐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종교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공산당이 종교 가운데 가장 관용을 베푸는 곳이 불교이며, 불사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중국 문화유산 가운데 70%가 불교 문화유산으로서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불교'라는 코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고대·중세에 중국불교는 동아시아에서 중심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승려는 중국에 유학하거나 법맥을 받아왔다. 현 조계종은 옛 중국선사들과의 법맥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중국사찰 순례 중 정치승보다 올곧고 신심 깊은 승려들을 많이 만났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해 중국불교와의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예전의 불학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장애인과 AI, 그리고 불교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올해는 AI(인공지능)에 대한 소식으로 1년을 보낸 것 같다. 최근 한 전자연구원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지·정서·물리적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로봇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AI시대를 맞아 '장애인을 위한 AI'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음이 새삼 반가워진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 시대의 AI기술은 장애유무를 떠나 일상생활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쓰임이 보편화 되어진 AI기술이 장애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AI의 발전은 모든 사회영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디자인된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은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가고, 장애인에게 있어 기술은 개인적 편리함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까지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었다.

이미 보편화된 PC와 스마트폰처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을 넘어 시각, 청각, 인지, 정서, 학습, 언어 등의 장애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

'장애인을 위한 AI' 개발 활성화
장애인 삶의 질 높여주는 매개체
불교도 AI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는 장애인 보조공학의 발전도 일부다.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구를 이용한 사회적 상호소통의 노력이라던지, 인공와우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이동성 보조 등이 좋은 예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경, 수동휠체어의 발전한 형태인 전동휠체어, 보청기,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앱까지 장애인에게 기술은 장애 정도 혹은 장애 여부까지 바꿀 수 있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최근의 AI기술은 장애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위한 AI는 분야는 시각, 청각, 뇌병변과 지체장애 쪽은 생활 보조에 방점이 있고 학습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 쪽은 진단과 교육으로 발전의 방점이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AI는 이동성 보조, 의사소통 기회와 능력 향상, 독립성 향상,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성 확대와 종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은 불교계에서도 불교와 AI의 접목이 이목을 집중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불교 체험 확대, MZ세대 포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상과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 불교의 다양한 정보 접근이 AI기술을 통해 용이해져 불교의 수행과 신행 활동, 젊은 세대 포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장애인과 AI, 불교와 AI가 서로 동떨어진 상관관계인 것 같지만 이 환경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장애인의 수행에 더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社 說

사찰 이모지, 한국불교가 만들자

현대불교신문은 1509호부터 1511호까지 연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락돼 있는 '사찰 이모지'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시작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애플사의 아이폰에 탑재된 이모지에 '사찰'만이 없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취재를 거듭하며 '이모지'를 제작·배급 보급하는 단체가 미국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미국 비영리단체 '유니코드 협회(Unicode Consortium)'로 이 협회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모지를 제공받고 있다. 이유는 이모지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코드'를 설정

전 세계 온라인 인구 92%, 이모지 활용해 의사소통
사찰, 베삭데이 이모지 없어…타종교 이모지 활성화
유니코드協 매년 4~8월 공모, 한국불교도 참여하자

해야 하는데 유니코드 협회가 이모지 표준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표준코드는 전 세계 기업으로 발상되고, 코드를 받은 기업들은 각 사에 맞는 이모지를 개발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직접 이모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이 '표준코드' 때문이다.

결국 사찰 이모지를 담은 '표준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다. 이 역시 확인 결과 유니코드 협회는 매년 4~8월에 원활한 온라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신규 이모지를 제작·등록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실제 2017년 힌두교 신자 2명은 "교회와 모스크 등은 있는데, 힌두교를 대표하는 이모지가 없다"면서 이모지 공모에 참여했고, 힌두교 사원 검색 빈도가 유대교 회당과 이슬람 메카보다 높음을 증명해 2019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국의 불자나 국민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모지가 많이 활용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유니코드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인구의 92%가 의사소통에서 이모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모지는 단순히 스마트폰에 탑재된 서비스 기능을 넘어 전 세계인의 일상 커뮤니케이션 도구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사실상 공공재라는 의미도 가진다.

실제, 세계인이 기념하는 종교 기념일인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힌두교 축제 등불을 나타내는 '디왈리' 등이 이모지가 제작됐지만,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축제 '베삭(Vesak)데이'는 없다. 다시 말해, 언어를 넘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모지가 없어 부처님오신날을 세계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불교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한국불교가 이모지 제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옛말이 있다. 사찰과 불교 이모지가 누락됐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넣으면 된다. '사찰 이모지' 제작에 범불교적인 관심을 바란다.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2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2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2월 1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4,499,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g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198,000원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